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7. 9 Vol. 189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부산문화회관 신임관장 정우연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청산에 살리라와 시원한 솔바람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진미진선(盡美盡善)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프랑스



2008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대관안내

● **대 상** : 대극장(1423석), 중극장(781석), 소극장(249석)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08년 1월 ~ 6월 (6개월간)

※ 무대정비로 인한 대관 불가기간

- 대극장 : 1월 2일(수) ~ 1월 4일(금) (3일간)

- 중극장 : 1월 2일(수) ~ 1월 4일(금) (3일간)

- 소극장 : 1월 2일(수) ~ 1월 4일(금) (3일간)

▶ 접수기간 : 2007년 9월 12일(수) ~ 9월 28일(금) (10일간)

- 접수시간 : 월 ~ 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전시에 우선 대관하고, 대중 예술공연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

- 국제적 수준 또는 순수예술인,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공연·전시에 우선 대관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에 우선 대관

- 소규모 연주회는 소극장으로 대관안내, 대·중극장 편중지양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연·전시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후 30일 이내 납부, 계약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거 대관 취소시 납입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는 시에 귀속됩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 607-6051~6



배지현 박은주 피아노 듀오콘서트
BAE, Ji-Hyun & PARK, Eun-ju Piano Duo Concert

그리그서거100주기기념음악회
파리로의 음악여행

F. Poulenc Sonata for piano Four Hands
A. Arensky Suite for two Piano op.15
G. Grieg Norwegian Dances, op. 35 (1881)
Peer Gynt Suit NO.1 op.46 (1909)
Peer Gynt Suit No.2 op.55

해설 김종진

피아니스트 배지현 피아니스트 박은주

9/4

카잘라 트리오 콘서트 Trio Chassalla!! Concert

민강은 조여진 왕적의
카셀에서 온 뮤직레터

플라리넷 王鎭(Wang Di) 해설 황시내

L.v. Beethoven Trio No.4 in B flat Major op.11
N. Rota Clarinet Trio
J. Brahms Trio in a minor op.108

피아노 민강은

9/11

부·울·경을 연결하는 음악의 네트워크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음악회

2007 - 9 PBC TUESDAY CONCERT

피비씨 화요일 음악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가톨릭소극장 051-462-1870 www.bccenter.or.kr

백재진교수의 실내악시리즈1) 바로크 바이올린앙상블의 밤
Baroque Violin Ensemble Concert

Play Baroque Only Violin

박정현 박성미 이왕희 박은진 이애지 윤승하

해설 박진홍

G.P. Telemann Concerto in C major for 4 violins
A. Vivaldi Concerto in a minor for 2 violins
J.S. Bach Concerto in d minor for 2 violins
G.P. Telemann Concerto in D major for 4 violins

9/18

피아니스트 정소영 비올리스트 양지은 조인트 리사이틀
Pianist JEONG, So-Young Violist YANG, Ji-Eun Joint Recital

풍성한 가을! 쾰른의 열매

G. FAURE Romance sans Paroles Op.17 No.3
P. TCHAIKOVSKY "October" aus Die Jahreszeiten Op.37a
F. CHOPIN Ballade No.1 Op.23
J.N. HUMMEL Fantasia for Viola and Piano
S. GUBAIDULINA Chaconne (1957)
F. SCHUBERT Sonata "Arpeggione" for Viola and Piano

비올리스트 양지은 피아니스트 정소영

해설 김윤선 (수) **9/26**

이 음악회는 라디오 FM(부산·경남 FM101.1, 울산 94.3MHz)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실황녹음 방송됩니다.

www.birdclassic.co.kr PBC 화요일음악회 녹음은 클래식음악 녹음전문기업 Bird Classic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www.birdclassic.co.kr

이제,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DVD로 소장하십시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 음반 녹음 ·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DVD, SVHS) · 콘서트 촬영

051-744-1150 / 011-562-8773

BIRD classic 부산시 남구 대연동 55-12 2층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2회 정기연주회

B U S A N
P H I L H A R M O N I C
O R C H E S T R A
4 3 2 N D
S U B S C R I P T I O N
C O N C E R T



VIOLIN. BAEK JU-YOUNG 바이올린 · 백주영



FRIDAY, SEPTEMBER 14, 2007, 7:30PM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7. 9. 14 7:30PM

CONDUCTOR. LI XINCAO 지휘 · 리 신차오

주 최 _ 부산광역시 후원 _ 문화마을 하늘재

연주곡목 _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 바그너 / 지크프리트 목가 · R. 슈트라우스 / 장미의 기사 모음곡
공연문의 _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culture.busan.kr

입 장 권 _ R석 10,000 S석 7,000원 A석 5,000원

서버버스 운행 (무료) ■ 출발지: 7번가피자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예매처 부산은행 티켓365 서면 / 영광동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대연동 / 면학동서 (경성대 앞 623-9404)
남포동 /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 /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하 단 / 향학서점 (등아대 입구 204-9381)

Contents

2007 · 09



- 06 부산문화회관 9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문화의 강대국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 김희성
- 12 반갑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신임관장 정우연
- 14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청산에 살리라>와 시원한 솔바람 · 김상훈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프랑스 에콜노르말 · 이연기
- 20 어화동등 이야기 국악 | 진미진선(盡美盡善) · 강성일
- 22 우리춤 산책 | 강강술래 · 흥기태
- 24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지하철역에서의 바그너-신상용 <러시 아워>
· 김형술
- 26 연극속으로 | 감각 · 유상훈
- 28 그곳에 가면 |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 30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 32 지금 준비중 | 이태리음악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공연
- 34 이 사람 |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연주하는 지휘자 리 신차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 36 공연 화제 | 윤이상 민족 칸타타
'나의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초연
- 39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2 9월 프로그램 가이드
- 62 쉽게듣는 클래식 | 오페라 · 객근수
- 63 세계의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이상훈
- 64 새로 나온 음반
- 65 새로 나온 책
- 66 부산문화회관 소식
- 6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9 100자 토크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대연 4동 848-4)
· 발행인 정우연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8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63-4 하이월 B/D B1층

■ 표지설명 : 세계적인 작곡가故 윤이상 선생이 작곡한 민족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가 오는 9월 2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한울림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의 연주로 한국초연된다.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월 공연일정

전시실

제 3회 부경 서도대전-대·중전시실

9월 1일(토)~9월 3일(월) (9월 1일 오후 3:00 오픈)

문의 (사)한국서도협회 부산경남지회
(516-5678, 011-9501-8181)

제 4회 부산여성서화작가회전-대전전시실

9월 4일(화)~9월 7일(금) (4일은 오후부터 관람가능)

문의 허중자(019-585-5520)

부산한서미술대전-중전시실

9월 4일(화)~9월 7일(금) (4일은 오후부터 관람가능)

문의 한서미술협회(811-1238, 010-2582-4201)

제 27회 부산미술제-대·중전시실

9월 10일(월)~9월 16일(일)

-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영상설치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제 7회 한국문인화 대전-대·중전시실

9월 17일(월)~9월 20일(목)

문의 대한민국의예인연합회(868-5236, 011-864-3698)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대전전시실

9월 21일(금)~9월 26일(수) (21일은 오후부터 관람가능)

문의 신라대학교 미술학과(999-5425)

(사)부산광역시 수석연합회원전-대전전시실

9월 27일(목)~9월 30일(일)

문의 (사)부산광역시 수석연합회(635-1131, 011-579-113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60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1 Feel the Legend of Musical '웨스트사이드스토리' 16:00, 20:00
8만원 · 7만원 · 6만원 · 5만원 · 4만원/좌AN시티(1644-4484)
- 2 Feel the Legend of Musical '웨스트사이드스토리' 15:00, 19:00
8만원 · 7만원 · 6만원 · 5만원 · 4만원/좌AN시티(1644-4484)
- 3 솔로페라 유럽 오페라단 주역 가수 초창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솔로페라단(740-5750)
- 4 클로리콰이어 제 17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김명일(010-7556-5006)
- 5 동래한량춤 부산무용문화제 제 14호 기념공연 19:30
초대/김진홍전통춤연구회(646-0845, 011-841-4882)
- 6
- 7 부산예술제 2007 개막식 및 부산예술상 시상식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부산예술(631-1377)
- 8 2007 정신해무용단 전통춤 레퍼토리 '수려(秀麗)' 19:00
3만원 · 2만원 · 1만원/정신해(010-3851-6325)
- 9 동국예술기획 '제 5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19:30
5만원 · 3만원 · 1만원/동국예술기획(02-2278-5452, 011-223-0022)
- 10
- 11 제 5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7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12 제 5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7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13 제 5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7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2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 15
- 16 패티김 콘서트 18:00
피케이 프로덕션(02-518-8586)
- 17 2007 가을음악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임재우(747-1567, 010-3038-7191)
- 18 2007 열정과 정열의 테너 '오동주 콘서트' 19:30
2만원 · 1만원/오동주(017-556-5058)
- 19
- 20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윤이상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20:00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부산문화회관(607-6070), 한울림합창단(466-1978)
- 21 고태국 선생 추모 제 9회 부산성악콩쿠르 본선 13:00
부산일보(461-4437)
- 22 부산가톨릭합창단 제 28회 정기연주회-Missa di Gloria - Giacomo Puccini-
19:30 균일 1만원/부산가톨릭합창단(510-0512, 019-517-3664)
- 23
- 24
- 25
- 26
- 27
- 28 부산교구 설정 50주년기념 연극 '불씨' 16:00, 19:30
균일 3천원/부산가톨릭센터(462-1870)
- 29 부산교구 설정 50주년기념 연극 '불씨' 16:00, 19:30
균일 3천원/부산가톨릭센터(462-1870)
- 30 부산교구 설정 50주년기념 연극 '불씨' 16:00
균일 3천원/부산가톨릭센터(462-1870)
- 10/1 이태리 음악연구회 창단 20주년 기념 제 26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찬(607-4041, 607-6070)

중극장

MEDIUM THEATER

- 1 **sat** 부산 YMCA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공연 19:30
초대/장진(010-4579-0115), 김지은(010-4870-3808)
- 2 **sun** 이라희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초대/이라희(010-4604-7040)
- 3 **mon** 백승태 작곡발표회 19:30
균일 1만원/백승태(018-244-1723)
- 4 **tue** 제 2회 이웃사랑 4색국악 향연 19:30
초대/부산여성문화회관(320-8344)
- 5 **wed**
- 6 **thu** 고태국 선생 추모 제 9회 부산성악콩쿠르 예선 14:00
부산일보사(461-4437)
- 7 **fri** 고태국 선생 추모 제 9회 부산성악콩쿠르 예선 14:00
부산일보사(461-4437)
- 8 **sat** 고태국 선생 추모 제 9회 부산성악콩쿠르 예선 14:00
부산일보사(461-4437)
- 9 **sun** 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30회 정기연주회 '스트링 인 코리아' 19:30 1만원 - 5천원/정성철(010-2565-8724)
- 10 **mon** 이명진 첼로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동아대학교(240-2853), 이명진(010-9808-6919)
- 11 **tue** 부산콘서트 콰이어 '평화를 그리는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조승환(011-6506-0226)
- 12 **wed** 로고현대무용단 제17회 정기공연 19:30
1만원 - 5천원/손영일(011-581-2156), 김현희(011-551-9630)
- 13 **thu** 2007 향천회 작품발표회 19:30
균일 1만원/백승태(018-244-1723)
- 14 **fri**
- 15 **sat** 2007 제 30회 부산예술제-무용예술제 18:00
1만원 - 7천원/무용협회 부산지회(632-5116)
- 16 **sun** 이연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집 음반 발매 기념 독주회 17:00
5만원 - 3만원 - 1만원/유지필(02-706-1481~2)
- 17 **mon** 제 13회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백진현(999-5263, 011-503-9541)
- 18 **tue**
- 19 **wed** 독우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이문숙(016-570-7031), 예은예술기획(632-6904)
- 20 **thu** 최석태 제 5회 작곡발표회 19:30
1만원 - 5천원/최석태(019-623-1547)
- 21 **fri**
- 22 **sat** 창립 21주년 어울림 국악 연구회 14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아울림국악연구회(467-7975, 019-548-5418)
- 23 **sun**
- 24 **mon**
- 25 **tue**
- 26 **wed**
- 27 **thu** 원희선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초대/원희선(010-2288-8704)
- 28 **fri** 김문주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김문주(294-8374, 010-6488-8375)
- 29 **sat**
- 30 **sun** 김정원의 춤 두번째 이야기 18:00
2만원 - 1만원/김정원(636-8071, 017-567-8071)
- 10/1 **mon**

소극장

SMALL THEATER

- 1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 **sun** 신연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7:00
무료/신연음악학원(644-7228)
- 3 **mon**
- 4 **tue**
- 5 **wed**
- 6 **thu**
- 7 **fri** 2007 제 2회 부산 청소년 플루트 음악축제 19:30
초대/이하룡(011-9535-0421)
- 8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9 **sun**
- 10 **mon**
- 11 **tue**
- 12 **wed**
- 13 **thu**
- 14 **fri** 2007년 제 2회 부산 아이노래 페스티벌 19:30
무료/아이노래(1588-7996), 이경희(011-558-7824)
- 15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 4중주 '아모르파르뎃'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6 **sun** 클래식기타리스트 안나 비도비치 내한 콘서트 16:00
균일 3만원/프라이트(02-585-2934)
- 17 **mon** 신문범 판소리 고법발표회 19:30
균일 1만원/신문범(016-557-6058)
- 18 **tue**
- 19 **wed** 부산문화의 달 기념공연 극단 누리에 '적의 화장법' 19:30
1만5천원 - 1만원/연극협회부산지회(645-3759)
- 20 **thu** 부산문화의 달 기념공연 극단 누리에 '적의 화장법' 19:30
1만5천원 - 1만원/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 21 **fri** 부산문화의 달 기념공연 극단 누리에 '적의 화장법' 19:30
1만5천원 - 1만원/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 22 **sat**
- 23 **sun**
- 24 **mon**
- 25 **tue**
- 26 **wed**
- 27 **thu**
- 28 **fri**
- 29 **sat** 토요일상설무대-남성성악앙상블 4+1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30 **sun**
- 10/1 **mon**

부산시내 기타공연 9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시민회관(630-5200)

- 1 sat 전국국악경연대회 '제 14회 부산국악대전' 08:00 -소극장 부산국악협회(644-5211)
- 2 sun 전국국악경연대회 '제 14회 부산국악대전' 08:00 -소극장 부산국악협회(644-5211)
- 3 mon 월요영화 '트랜스포머'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4 tue 하늘소리 풍물패 제 5회 정기공연 및 불자의 밤 19:30 -소극장 무료/김동현(017-545-7786)
- 5 wed
- 6 thu
- 7 fri
- 8 sat 남경주의 All That Musical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오즈의 마법사 12:00, 13:00, 15:00 -소극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9 sun 남경주의 All That Musical 15: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2007 부산영상제 11:00 -소극장 부산영화인협회(441-9084)
- 10 mon 월요영화 '환타스틱4'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1 tue 2007 부산예술제-극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19:3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12 wed 2007 부산예술제-극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19:3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13 thu 2007 부산예술제 실버무용제 19:30 -대극장 부산무용협회(632-5116)
2007 부산예술제-극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19:30 -소극장
- 14 fri
- 15 sat 부산예술제 2007 국악대향연 19:00 -대극장 부산국악협회(644-5211)
부산예술제 2007-부산연극협회 '행복한 죽음' 16:00, 19:00 -소극장
- 16 sun 2007 부산예술제 실버가요제 17:00 -대극장 부산연예인협회(646-7343)
부산연극협회 '행복한 죽음' 18:00 -소극장 부산연극협회(645-3759)
- 17 mon 월요영화 '해리포터와 불사조기사단'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8 tue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뮤지컬 '노노이야기' 11:00, 14:00 -대극장 무료/상상나눔씨어터(02-741-2002)
- 19 wed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뮤지컬 '노노이야기' 11:00, 14:00 -대극장 무료/상상나눔씨어터(02-741-2002)
- 20 thu 월요영화 '다이하드4'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동아 8인 음악회 19:30 -소극장 초대/강미래(018-617-1125)
- 21 fri 월요영화 '다이하드4'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2 sat 월요영화 '해리포터와 불사조기사단' '환타스틱4' (교차상영) 14:00, 17:0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3 sun 월요영화 '해리포터와 불사조기사단' '환타스틱4' (교차상영) 14:00, 17:0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4 mon
- 25 tue
- 26 wed
- 27 thu
- 28 fri
- 29 sat
- 30 sun 이미자 콘서트 15:00, 18:00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주)하늘소리(011-9513-8040)
- 10/1 mon 월요영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금정문화회관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sat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16:00, 19:00 -대공연장 부산정가회 제 6회 정기공연 19:00 -소공연장 문금재(019-559-6119)
- 2 sun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15:00, 18:00 -대공연장 4만4천원 · 3만3천원/(주)코엔(1544-3164)
- 3 mon 부산신포니에타 제 60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6천원/김영희(011-9519-0448)
- 4 tue 이은옥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소공연장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5 wed 김미자 전통 출몰전 19:30 -대공연장 연정CHM(510-2949)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6 thu 일파가야금합주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일파가야금합주단(582-9119)
- 7 fri 2007 브니엘 무용발표회 19:30 -대공연장 브니엘예고(582-7671)
김연화 바순 귀국독주회 19:30 -소공연장 프로인트(521-5729)
- 8 sat 김성은 플루트 클래스발표회 17:00 -소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9 sun
- 10 mon 박필은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11 tue 최민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최민경(010-9496-2687)
- 12 wed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안상철(010-2400-5271)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13 thu
- 14 fri 부산타악기교사연구회 제 2회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무료/이동철(010-4666-6802)
- 15 sat 아리아와 함께하는 무도회 19:00 -대공연장 이수정(011-393-5118)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2:00, 13:00, 15:00 -소공연장
- 16 sun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3:00, 15:00 -소공연장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17 mon
- 18 tue 2007 홍순아 현대춤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홍순아(019-260-9046)
- 19 wed 금정수요음악회 '시와 음악이 만나는 가을밤의 향연'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0 thu 김선화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가람공연기획(626-6664)
- 21 fri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이은미(010-8277-4746)
- 22 sat
- 23 sun
- 24 mon
- 25 tue
- 26 wed
- 27 thu 방호준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28 fri
- 29 sat
- 30 sun
- 10/1 mon 제 9회 부산한국축연연구회 정기공연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임나영(011-577-5515)

울속도문화회관

|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331~2)

- 1 sat
- 2 sun
- 3 mon **전시일정**
- 4 tue 2007.사하미술의 새로운 비상전
9월 7일(금)-9월 13일(목)
문의 김판수(011-556-9810)
- 5 wed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전시회 및 발표회
9월 17(월)-9월 21일(금)
문의 사하구청 총무과(220-4114)
- 6 thu
- 7 fri
- 8 sat 토요뮤직점프 11:00 -소공연장
균일 2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21)
- 9 sun
- 10 mon 벨리니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소공연장
초대/배은심(016-9580-4741)
- 11 tue
- 12 wed
- 13 thu
- 14 fri
- 15 sat 어린이뮤지컬 '정글북'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6 sun 어린이뮤지컬 '정글북'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7 mon
- 18 tue
- 19 wed
- 20 thu
- 21 fri
- 22 sat 부산·영남 무용예술제 10:00 -대공연장 (사)중앙무용문화예술원(011-284-8880)
토요뮤직점프 11:00 -소공연장 울속도문화회관(220-5321)
- 23 sun
- 24 mon
- 25 tue
- 26 wed
- 27 thu 보고싶은 영화감상 19:00 -소공연장
무료/울속도문화회관(220-5321)
- 28 fri
- 29 sat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극단 어린왕자(802-8111)
- 30 sun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13:00, 15:00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극단 어린왕자(802-8111)
- 10/1 mon

해운대문화회관

|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1 sat 해운대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음악회 '메시아' 19:00
-대공연장 초대/해운대교회(747-0091)
- 2 sun
- 3 mon
- 4 tue
- 5 wed 연극 '행복한 죽음' 20:0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2)
- 6 thu
- 7 fri
- 8 sat 어린이뮤지컬 '정글북'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9 sun 어린이뮤지컬 '정글북' 12:00,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0 mon
- 11 tue 소프라노 김성경 귀국독창회 19:30 -대공연장
초대/중앙음악신문사(011-864-1928)
- 12 wed
- 13 thu
- 14 fri 오페라 '비밀결혼'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2)
- 15 sat 오페라 '비밀결혼' 15:00, 19:0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2)
- 16 sun
- 17 mon
- 18 tue
- 19 wed 앙상블 클라리아 브런치 콘서트 11:00 -대공연장 앙상블클라리아(506-6305)
최태연 귀국 피아노독주회 19:30 -대공연장 최태연(010-4801-4967)
- 20 thu
- 21 fri
- 22 sat
- 23 sun
- 24 mon
- 25 tue
- 26 wed
- 27 thu
- 28 fri
- 29 sat
- 30 sun
- 10/1 mon

문화의 강대국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김희성 · 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국도클래식음악동호회 회장



작년 여름,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동서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동유럽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을 둘러보기에 시간은 부족하였지만 특히 문화적 체험과 충격으로 많은 것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유럽 지역은 현재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며, 지금도 유럽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유럽연합으로 'Made in Korea' 제품을 쏟아내고 있고 이는 FTA 장벽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해보자. 구 소련연방의 붕괴 및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후 동유럽은 더 이상 접근하기 힘든 금단의 땅에서 해방되었고 이들 국가의 문화유산이 소개되면서 더 이상

이들 국가는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한뼘쯤 가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오스트리아는 예외이지만 무엇이 이들 국가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었을까? 무분별한 개발과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이윤추구 우선이 아닌 잘 보존되어있는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그들의 문화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았나 싶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일찍, 아직 깨어나지 않은 프라하 외곽을 산책하면서 제일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아무렇게나 내걸려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의 연주회 포스터였다. 프라하가 '돈 조반니'를 초연한 도시이긴 하지만 오페라 포스터가 걸려 있기에는 어색한 거리의 난간에서 동유럽 문화와의 의도하지 않은 만남은 앞으로의 충격을 예견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폴란드의 옛수도 크라쿠프(Krakow)는 인류 최고의 비극인 아우슈비츠로 유명하나, 유럽 최초의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도시이다. 크라쿠프 역시 도시 곳곳에 걸려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포스터들, 특히 십자가에 매어진 손이 인상적인 비발디와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의 연주회 포스터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콘서트 홀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당 등에서 매일 저녁 개최되는 문화행사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방문한 8월 3일은 마침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음악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었다. 전세계의 음악팬들이 몰려들어 잘츠부르크 시내의 도로상황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며 비까지 내리고 있어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역사적인 장소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편을 감수하고도 남음이 충분했다. 잘츠부르크의 중심인 대성당 앞에 모차르트의 대미사(K.427) 연주회 포스터가 세워져 있었다.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대성당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소프라노와 테너, 합창단은 일본인들이다. 모차르트 음악의 중심지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일본인들이 연수한다는 그 자체는 일본의 문화적 수준과 세계적인 위상을 대변하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 음악이 깊게 자리잡은 동유럽 국가들은 자기들의 음악이기 때문에 보편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입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예능 교과목은 이미 중요 교과목에 밀려 시간표에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IT의 강대국(?)답게 각종 정보통신분야의 혁신적인 발전과는 반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화적 소양과 수준은 우려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에 몰두하여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는 그들의 미래를 과연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물질의 풍족함과 함께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자. 수학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품을 만나고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이 더욱 윤택해진다면,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더 이상 부러움없는 자신감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조성 부산문화회관 신임관장 정우연



“2008년 부산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습니다. 부산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연극제 등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개최하면서 부산시민들의 문화 향유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부산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제 14대 관장으로 취임한 정우연(53세) 신임 부산문화회관장. 취임 후 부산문화회관의 수장으로 업무 파악에 분주했던 그는 많은 문화계 인사들과 만나며 2007년 여름을 바쁘게 보냈다.

부산문화계에서는 그동안 부산문화회관을 거쳐 간 관장들이 정년퇴임을 앞둔 공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4급 승진과 함께 부산문화회관으로 부임한 정우연 관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각 구군에 있는 문화회관의 만형 역할도 해야 하고 부산의 문화 예술과 문화 산업도 이끌어야 합니다. 높아진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와 수준에 맞는 문화 예술 행정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정우연 관장은 평소 문화 예술과 행정이 시민 생활 현장과 문화 예술 현장에서 하나로 결합해서 생생하게 움직여 가는 ‘문화 예술과 행정의 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개관 20년을 맞는 부산문화회관의 수장으로 정우연 관장이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다



른 중요한 업무도 많지만 정우연 관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대극장 객석 교체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시설 개량과 20주년 기획 공연 예산 확충이다.

부산문화회관이 20년 전 건립당시에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시설이 좁고 많이 낡았다. 정우연 관장은 리모델링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또 현재 연간 2억원 정도인 기획공연 예산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이란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추어 나면서 부산문화회관장의 역할에 대해 해답을 찾아나갈 생각이다.

“시정 목표이기도 한 행복도시 구현은 바로 문화 예술진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가 발전해야 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북구청 근무 당시 문화정보과장으로 문화관련 업무를 한 바 있는 정우연 관장은 7개 예술단 지휘자, 안무자와 단원들과 함께 대화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행정 조직만 관장하는 관장이 아니라 단원은 물론 문화예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편안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오래 전 부산시민회관에서 독일에서 온 한 교향악단 연주회를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오케스트라 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정우연 관장은 부산문화회관장 부임 전부터 공연을 보기 위해 가끔씩 공연장을 찾았다. 앞으로 시민들이 문화회관을 찾아와 감동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정우연 관장 스스로 관객의 입장이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을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싶다.

33년간 부산시에서 쌓은 행정경험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는 정우연 관장. 그의 부산 사랑, 문화 사랑과 탁월한 추진력으로 바뀌어 나갈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모습에 기대가 크다.

〈청산에 살리라〉와 시원한 솔바람

민립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3천여곡이 넘는 가곡을 발표한 김연준선생.

바야흐로 한반도는 폭염특보가 내릴 정도로 찜통더위에 연일 시달리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설치고 있다.

게릴라성 폭우가 말 그대로 폭포처럼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기습적인 낙뢰(落雷)로 등산객이 목숨을 잃는 참극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의 바다와 강엔 피서객이 쇠도하고 산과 들에는 8월의 짙은 녹음이 울창(鬱蒼)하다 못해 칠칠(漆漆)하기 까지 하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온 국토가 검푸른 초록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고, 오곡백과는 가을날의 보다 알찬 결실을 위해 살을 채우고 색깔을 더해가고 있다.

딱히 이 계절에 맞는 가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청산에 살리라〉를 떠올리게 된다.

“나는 수풀 육어진 청산에 살으리라 /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 살으리라 / - 중략 - / 세상 번뇌 시름 잊고 청산에 살리라 / 길고 긴 세월동안 온갖 세상 변화였어도 /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살리라”

이 노래는 김연준 선생이 작곡도 하고 작사까지 한 정성어린 작품이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작곡가가 작사까지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창작행위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제 9심포니〉 합창 부분에서도 쉐러의 시가 부족하여 후반을 베토벤 자신의 시로 보완했고 현제명 작곡 〈고향생각〉, 김성태 작곡 〈한송이 흰 백합화〉 등 가곡도 작곡가들이 작사까지 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작곡가 김연준 선생은 자그마치 3천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하고 2천여곡을 출판한 바가 있다. 그 지칠 줄 모르는 의욕과 정열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작곡가로 알려진 김동진 선생도 가곡 작품의 수에 있어서는 1백여곡에 머물러 있으며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마저 6백여곡 밖에 안되고 보면 수량의 다과(多寡)를 기준으로 할 때 단연 세계 제 1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연준 선생은 1916년 함경북도 명천(明川)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대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 꿈은 기독교 장로였던 부친 김병완(金炳完) 씨의 이해와 지원을 받으며 서서히 커졌다. 특기할 사실은 연희전문 4학년 때 처음으로 가진 공식 데뷔를 작곡 아닌 독창으로 시도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성악가

로 활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1937년 6월 4일 서울 공회당에서 선교사의 딸인 앤더슨(Sara May Anderson)의 반주로 음악회를 개최했을 때 그의 나이 24세였고 한국 최초의 바리톤 독창회로 패기있는 출발을 했던 것이다. 그때 연주된 프로그램을 보면 슈페르트의 가곡 〈방랑자〉를 비롯하여 프란츠 곡의 〈원망을 말아다오〉, 차이코프스키의 〈오 내마음 괴로워라〉, 헨델의 〈라르고〉 등과 오페라곡으로는 구노의 ‘파우스트’ 중에서 〈굳은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 바그너의 ‘탄호이저’ 중에서 〈저녁별의 노래〉, 베르디의 ‘춘희’ 중에서 〈푸토벤자의 바다와 육지〉 그리고 ‘가면무도회’ 중에서 〈오 그대였던가〉, 몬시니 곡인 ‘데젤털’ 중에서 〈사랑하는 루이스야 잘 있어라〉, 비제의 ‘칼맨’ 중에서 〈투우사의 노래〉 등 정말 푸짐하고 다양한 곡목편성으로 의욕적인 독창회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는 성악을 안기영과 현제명으로 부터 단기간 사사한 후 주로 음반을 통해 노래를 익혀 독창회를 개최했다. 1937년 9월과 다음해 그는 서천(瑞川), 성진(城津) 등에서 자선독창회를 가진 이후 성악에서 잠시 비켜서서 작곡에 몰두하게 되고 1972년 10월 28일 제 1회 작곡발표회를 시민회관에서 가심으로 실로 35년만에 작곡가로 번신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그는 해방조국의 빈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5세의 나이로 공업 학교를 설립, 많은 기술인력을 배출시켰으니 그것이 한양공대를 거쳐 오늘날의 한양대학교로 발전, 번창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는 언제나 작곡가로서 인정받고 싶었으나 일반 국민들은 대학총장이 취미나 여기(餘技)로 작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생의 작곡활동 중 특기할만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인의 시에다 작곡하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이다. 흥운숙, 박목월, 박재삼, 신동춘, 김지향, 고진숙 시인의 시를 좋아했고 작품으로는 〈물레감는 여인〉, 〈신기루〉, 〈코스모스의 미소〉, 〈청산에 살리라〉, 〈초롱꽃〉, 〈백일홍〉, 〈비가〉, 〈고독한 길〉, 〈괴로운 순간〉, 〈버드나무의 울동〉, 〈밤바닷가에서〉, 〈기러기〉, 〈낙엽길 걸으며〉, 〈노티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서〉, 〈별들의 속삭임〉, 〈애상〉, 〈청포도〉, 〈갈대밭〉, 〈낙천〉, 〈오색의 연〉, 〈방황〉, 〈바닷가 추억〉 등 이루다 손꼽을 수가 없다.

그의 독창회나 창작곡 발표에서 보인 반응과 평가는 “섬세한 정념이 로맨틱한 화성을 배경으로 표백되고 있으며 언어의 자연적 흐름을 중시하고 있다” “친하기 쉬운 구김살 없는 선율의 서정가곡인 민속적 색채가 서구 전통의 가곡과 함께 조화있게 발전하여 매우 자연스럽게 근대곡으로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낭만파 가곡보다는 이탈리아의

고전가곡에 가깝고, 또 러시아 국민악파의 무소르그스키 가곡에 더욱 가까운 것을 느끼게 한다. 세공적인 면은 없고 대륙적이어서 유유자적의 기풍을 지니고 있다” “커다란 서정의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등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비중있게 수용해야 할 것은 서독 보룸(Bochum)대학교의 음악연구소 소장인 하인즈 베커 교수의 평가이다. 그는 김연준 선생의 가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낭만적이라 부르는 음조를 사용해서 절제있게 악곡을 표현하고 있다. 더없이 놀라운 것으로는 R.시트라우스 풍의 수직적 선율학과 라이하르트시대의 단순한 표현양식이 융합되어 이 작품 속에 대각선적 작풍이 역역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곡을 작곡한 선생, 우리나라 최초의 바리톤 독창회를 가진 선생,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5세의 나이로 오늘날의 한양대학교를 설립한 선생, 그러한 공로와 업적으로 1979년 서독의 튀르빙겐대학 창립 5백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예술가에게 주는 ‘예술가상’을 수상한 선생을 우리는 큰 자랑으로 생각하며 존경해야 할 것이다. 이 상(賞) 역시, 피아니스트 슐비야트 슬라브리히델, 바이올리니스트 헬릭 쉬링, 성악가 헤르만 프라이에 이어서 작곡가로는 첫 번째 수상자가 된 것이다. 창작예술과 육영사업에서 독보적 업적을 남긴 김연준 선생과 같은 분이 이 땅에 보다 많이 탄생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간절하다.

어느 성악가가 가곡 〈청산에 살리라〉를 시원하게 부르면 잠시나마 찻통더위와 열대야의 고통을 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Ecole Normale Musique Conservatoire

이연기 · 프랑스 통신원



1919년 창립된 파리고등사범음악원인 에콜노르말은 프랑스 국보로 지정된 파리 시내의 유서깊은 건물에서 20세기의 대가 교수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로 만 26년째 성악 공부를 하고 있다.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스승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나에게 성악 스승님이라면 지금 한국에 살아 계신 최기례 선생님 과 대학 때 나를 소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해 주신 故 백강 이보향 교수님, 그리고, 여기 소개 하고 자 하는 Madame Isabel Garcisanz이다. 다른 선생님도 두 어분 있지만 나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라 이렇게 세분만 올린다.

만학의 나이로 파리에 온지 별

써 9개월! 아마도 나에겐 스승의 복이 있는 것 같다.

Ecole normale musique conservatoire paris에는 쟁쟁한 선생님들이 많다. 난 한국에서 출발할 때 몇몇 사람들로부터 Ecole normale musique conservatoire에는 좋은 성악 선생 님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 하지만 난 생각이 달랐다.

파리고등사범음악원인 에콜노르말은 1919년에 창립되었으며 프랑스 국보로 지정된 파리 시내의 유서깊은 건물에서 20세기의 대가 교수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입학 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학교인데 졸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라고나 할까! 학년 올라갈 때 마다 약간 명씩 잘려 나가더니 졸업 시험 즉 'Diplome superieur



73세인 Madame 'Isabel Garcisanz' 교수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강의는 물론 아직 연주 활동까지 하고 있다.

d'exécution de chant'을 따기 위해선 전체 인원 70%를 제쳐야 한다. 그러니까 30%만 통과를 시킨다는 것이다.

6개 학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3개의 학년은 준비과정으로 학년말 시험을 통해 승반 가부가 결정된다. 또한 고등반(고등음악원)은 3개 학년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학년은 또 2개의 반, 즉 앙세뉴방(교육자과정)과 에그제퀴송(연주자과정)으로 나뉜다. 학생은 마지막 6학년 에그제퀴송 졸업 후 성적에 따라 고등 콘서티스트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듯 그 명성에 걸맞은 교수님이 없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자 만학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나에게 소개 되어진 교수님이 바로 Madame 'Isabel Garcisanz' 이었다.

그녀의 나이는 무려 여기 나이로 73세, 한국 같았으면 벌써 퇴직해서 뒷 그늘로 사라질 나이이지만 너무나도 훌륭히 자신을 관리하면서 아직 연주 활동까지 하고 있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럼 그분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Isabel Garcisanz'의 활동무대는 극히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리, 비엔나,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팔레스티나, 런던, 필른, 리옹, 쾰른, 뮌헨, 스트라스부르크 그리고 또한 미국과 일본까지, 그녀는 소프라노로서 이 곳에서 모두 커다란 역들을 맡았다. 그리고 Glydebourne의 페스티벌에 역을 맡으러 6번 초청되었고, 요즘에도 그녀의 막대한 Catalogue는 더욱 더 넓혀지고 있다.

오페라를 넘어서서, 그녀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피아노와 기타나 클라비앵과 그녀의 독창회를 연다. 그녀의 실력은 벌써 프랑스, 스위스, 독일과 스페인의 TV 전파를 타고 확인되었고, 그녀의 리스트로 인한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특히 'le maitre de chapelle', 'l'ormindo', 'La coquette trompee', 또한, 'Le roi malgre lui'를 수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마도 그녀가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인지, 그녀는 흔하지 않은 스페인 멜로디 역들을 많이 맡기도 했다. 6년 전부터 이사벨은 그녀의 예술과 성악경험을 가르

치고 또 알려주는 것을 넓히고 있다.

그녀는 Ecole Normale Musique Conservatoire de Paris와 Francis Poulenc Conservatoire de Pari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다수의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있다.

이렇듯 화려한 약력뿐 만이 아니라 예술, 특히 성악은 장인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언젠가 부터 명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젊은 스승만을 찾는 경향이 넘쳐난다.

우리가 know-how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100년 대계인 교육엔 know-how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지 않는가! 여기 예술의 나라 프랑스엔 아직도 옛 것을 더욱 중요시 하듯 건축물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하듯 큰 스승을 끝까지 부려(?) 먹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녀는 레슨 중에 따뜻함을 절대로 잃지 않고 있으며 언제나 다정하고 음악학적으로 다른 해석을 할땐 날카로운 지적을 서슴지 않고 알려 주신다.

스페인 출신이라 소리를 만드는 테크닉 또한 대단하다. 언제나 공개 레슨을 하시는데 그만큼 자신의 teaching에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들이고 다른 참관자들이 탄성을 지를땐 제자에게 달려가 따뜻한 포옹도 아끼지 않는 가슴이 따뜻한 참 성악인이 여기에 있다.

단지 필자의 바람이 있다면 Madame 'Isabel Garcisanz'의 건강이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기원하며 많은 후배 성악도들이 그녀를 만나 보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젊은 음악도들이여! 이제 세계로 응비할 준비를 할 때이다. 국내는 어찌면 활동 무대가 포화 상태인지도 모른다. 세계를 봐야 한다. 우선 어학을 소리 공부하듯 열심히 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

진미진선(盡美盡善)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학교 강사

우리는 보통 어떤 음악을 듣고 '아름답다' 또는 '좋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꼭 좋지 않을 때는 '괜찮다'라는 말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말로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아름답다'라는 말보다 '좋다'라는 말이 친근감이 간다. 실로 음악에서 '아름답다'와 '좋다'란 말은 구분하기 어렵다. 굳이 구분하라고 하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해 받기 쉽다. 그렇다면 '아름답다'와 '좋다'란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동양의 성현이라 일컬어지는 공자는 '진미진선(盡美盡善)'이란 말로 대신했다.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다'란 뜻이다. 공자가 산천을 주유하다 중국 산둥성 지방의 제나라에 이르렀다. 그 때 순 임금의 '소(韶)'라는 음악을 듣고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좋다(盡美矣 又盡善也)'라고 하여 전해진 말이다. 그러나 그는 무왕의 '무(武)'라는 음악을 듣고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盡美矣 未盡善也)'라고 하였다.

순 임금은 중국 고대 은나라의 왕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요 임금으로부터 천하를 이어받고 그 자리를 우 임금한테 물려준 사람이다. 그런 그가 백성을 교화하고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표현된 것이 바로 '소(韶)'라는 음악이다. '소'악은 순리적인 왕위계승과 덕의 다스림 속에서 나온 음악이다. 그래서 공자는 '아름답고 또한 좋다'고 하였다.

음악이란 아름다움을 전제로 하지만, 그 행위자가 순리와 덕이 갖추어지면 더욱 더 큰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악을 '진미진선'이라 한다.

그렇다면 무왕의 '무(武)'악은 아름답지만 좋지 않다고 했을까. '무'악은 무왕의 음악인데, 무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자 폭군(暴君)인 주(紂)왕을 치고 주(周)나라를 통일시킨 사람이다. 그는 '전시대에 탕(湯)왕이 폭군인 걸(桀)왕을 치고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백성에게 폐를 끼쳐 부끄러워했는데 자기 또한 그 무엇이 다르랴'하고 폭군인 주(紂)왕을 친 임금이다. 그는 선대의 탕왕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자기 또한 타당한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탕왕은 무고한 백성에게 스스로 부끄러워했지만, 무왕은 탕왕에 비유하며 공(功)으로써 부끄러움을 정당화했다. 그래서 공자는 무왕이 만든 음악은 '아름답지만 좋지 않다'고 하였다. 공자는 무왕과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전쟁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백성의 피해를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아닌, 탕왕의 부끄러움에 비유한 것이 자못 못마땅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음악이 '무'악이기 때문에 공자는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것은 폭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통일시킨 위대한 공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음악일지라도 행위자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라는 음악같이 순리와 진실, 그리고 덕이라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음악이 이루어질 때 더욱 돋보인다는 것이 성인의 음악관이다. 음악 따로 삶 따로가 아니란 것이다.

공자는 순 임금의 ‘소’악을 듣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고 하였다. 그는 일찍이 시경(詩經)의 첫 노래인 관저(關雎)란 음악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즐거우면서도 음탕하지 않고 애처로우면서도 상심되지 않는다(樂而不淫 哀而不傷).” 한 음악을 듣고 이와 같이 평을 할 수 있는 성인이었다.

한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다 빛을 잃은 음악인들이 있다. 친일 음악인이 그런 경우다. 그들의 음악은 한 시대에 추앙을 받았으나 친일의 행적으로 빛을 잃었다. 자신의 삶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다. 음악은 시대와 국경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은 말한다. 진실한 삶 속에서 음악과 함께 한다는 것을.

무더운 여름 밤, 전태용과 이희완의 창부타령을 들으며 이 글을 쓴다. 두 명인의 소리도 좋으련만, 허용업의 피리와 하진옥의 장구추임새가 또한 좋다.

아~ ~니리리리 얼씨구나 좋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사랑 사랑 사랑이러니. 사랑이란 게 무엇이나.
알다가도 모를 사랑. 믿다가도 속는 사랑.
오목조목이 알뜰사랑. 알각 달각 싸운 사랑.
무월 삼경 깊은 사랑아. 공산야월 달 밝은데.
고요한 님 그린 사랑. 이내 간장을 다 녹이고.
지곳이 지곳이 애텐 사랑. 남의 정만 다 뺏어 가고.
줄 줄 모르는 알미운 사랑. 이 사랑 저 사랑 다 그만두고.
아무도 몰래 호젓이 만나. 소근 소근 은근 사랑.
얼씨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 사랑 참 사랑아.

(전태용의 ‘창부타령’ 중에서)

[음반 소개]

〈전태용의 창부타령〉 한국의 전통 음악 19집(국악보급진흥회, No7.
〈이희완의 창부타령〉 (주)국악중심, 2007년 발매.



강 강 술 래

홍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1966년 2월 15일 강강술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8호로 지정되었다.

강강술래가 주목 받았던 것은 1976년 부녀자들이 제 17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부터였다.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널리 전승되어온 집단 놀이로 주로 8월 한가위에 세시풍속의 하나로 놀아왔으나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대보름밤을 비롯해서 사계절 어느 때든지 달 밝은 밤이면 수시로 연희되기도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 여성놀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사진은 부산시립무용단이 선보인 '강강술래')

는 이 놀이의 연원에 대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결부된 설 등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옛 농경 사회의 축제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옛 마한의 습속에 5월과 10월 축제가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과 같이 풍요한 농산물을 바라고 또 그것을 구가하는 범민주적인 잔치였다.

고대 부족사회의 공동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뛰놀며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오늘의 강강술래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놀이를 의병술로 이용하여 왜적을 물리친 후 더욱 세상에 알려져 당시의 전적지였던 전남 남해안 일대에서 한층 성행되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 때에 수세에 놓인 우리 군세를 강하게 꾸며 왜적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이순신 장군은 마을 부녀자들에게 군복을 입혀 위장시킨 다음 해변 언덕 또는 산봉우리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를 맴들

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강강술래가 해남 진도지역의 전통 집단무로 정착하는데는 이 총무공의 전적지인 우수영을 끼고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다는데서 역사적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강강술래란 말은 여러가지 뜻이 전해진다. 강강술래란 말은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뜻으로 왜적이 물을 건너오니 이를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말 강강술래의 한자식 풀이로 생각된다. 또한 강강술래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강강'은 '돌래', '원'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으로 술래는 수레, 순유, 순라에서 나왔다고 본다. 강강술래란 '주위를 잘 지키라는 구호'였다고 한다. 여기에 주위의 뜻인 '강'이 둘 겹친 것은 특히 주위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술래가 수월래로 들리며 그렇게 기록되기 쉬운 것은 진양조로 길게 뽑을 때 수월래로 들리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므로 표기는 강강술래라고 하는 것이 옳다.

진양조의 늦은 강강술래를 한참하다가 선소리꾼이 흥겨운 증모리 가락으로 메기면 발 동작과 어깨 놀림이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동추야 달은 밝은 강강술래
우리님 생각 절로난다 강강술래
남아남아 놀이나 마라 강강술래
너줄라고 해온 보신 강강술래

이렇듯 강강술래로 접어들면 이순신 장군의 접전지인 해남 우수영과 진도지방에만 전해지는 특이한 음색과 선율을 느낄 수 있다.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 여성놀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정서가 넘치는 율동적인 놀이로서 한가위날 밝은 달 아래 펼쳐지는 큰 애기들의 한바탕 원무는 약동하는 생명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강강술래의 놀이 형태로는 걷기, 뛰기, 남생아 놀이라, 고사리 꺾기, 청어튀기, 멍석 말기, 기와 밝기, 대문 열기, 꼬리 따기, 끝내기 등이 있다.

해남군 문화원에서 강강술래의 전통을 살려 민속을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8월 한가위 때가 되면 강강술래 향토축제를 마련해 마을 부녀자들 사이에서 그 맥을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해남지방엔 강강술래 기능보유자로 김길임 씨가 지정되어 후보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하철에서의 바그너

— 신상용 <러시 아워, Etching Aquatint, 60x30cm> —

김형술 · 시인

출근길의 지하철 역 안엔 언제나 음악이 흘러나온다. 일 분 일 초를 다투며 종종걸음을 치는 출근길 인파 속에 묻혀서 듣는 음악의 느낌은 남다르다. 이 음악들은 날마다 곡목이 바뀌지만 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내려놓는 건 한결같다. 어떤 날은 계절에 상관없이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오고 어떤 날은 우울한 블루스 기타의 선율인 <Steel got the Blues>가, 어떤 날은 흥겨운 보사노바 리듬의 <The girl from Ipanema>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침 출근길에 듣는 음악의 백미는 아마도 클래식 음악들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베토벤의 <운명>이나 바그너의 <발퀴레의 기행>처럼 웅장한데다 비장함마저 감도는 고전음악을 들을라치면 그 느낌은 특별하기조차 하다. 뭐랄까, 삶이란 참 그 질량을 가능하기 힘들만큼 무겁고 또 무거운 그 무엇이구나, 또는 인간의 삶에서 일 혹은 직장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빼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어김없이 찾아들기 때문이다.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크고 작은 교육의 목적이 오로지 온전한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직업갯기에 불과하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취향이나 의지, 재능 따위는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완강한 자본주의의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배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시스템의 바깥으로 내쳐져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비록 귀를 찢는 포성과 시야를 가리는 자욱한 포화가 들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전장과 다름없다. 그러니 출근길 지하철역에 서서 전철을 기다리며 듣는 바그너의 음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질 수 밖에. 이 음악이 삽입된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는 포연 자욱한 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새카맣게 하늘을 수놓는 헬리콥터들이 불륨을 최대한으로 높인 채 <발퀴레의 기행>을 트는 장면이 있다. 그건 전쟁에서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거나 파괴자인 군인들 스스로를 위무하는 종류의 음악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굳이 전쟁을 만든 인간들에 관한 연민, 전쟁이 필요한 시대에 관한 조의, 문명의 무한한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모든 것을 바쳐왔으나 결국은 그 문명이라는 시스템에 굴복당한 채 억압받고 조종당하는 위치로 전락한 인간에 관한 조롱으로 들린다. 아침의 지하철역에 서서 터널 저쪽 어둠 속에서 아직 오지 않는 전철 쪽으로 연신 고개를 내밀며 듣는 바그너의 음악 또한 그런 느낌이다.



신상용 작 <러시 아워, Etching Aquatint. 60x30cm>

신상용의 그림 <러시 아워>속에는 제목에서 상상되는 도시의 번잡함과 소음, 빠르게 흘러가는 인파와 같은 일반적인 풍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분주한 하루가 끝난 후 사람들이 저마다의 긴 그림자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풍경처럼 보이기도 한다. 멈춰 서 있는 전차 위로 쏟아지는 강한 빛은 지금이 한낮임을 말해주지만 그 빛의 밝음만큼 깊고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설명하기 힘든 음울한 페이스스를 풍긴다. 그저 하나의 딱딱한 물체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물신 풍기는 전차와 그 전차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둘러싼 배경들 가로수 혹은 건물 또한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 그 배경의 크기와 배경이 갖는 어두운 그림자의 깊이가 압도적이어서 이 풍경 속의 주인은 사람이나 전차가 아니라 흐릿한 형체를 가진 검고 불길한 배경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배경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희미하고 나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간을 위한 문명의 이기로서의 기계(전차)가 아니라 기계에 종속된 채 소외된 존재로서의 인간. 문명의 진보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마침내 인간을 부속이나 부품으로 거느린 채 인간을 조종하는 거대 시스템으로서의 도시. 이 그림 속에는 그런 우울한 디스토피아의 느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림이 뿜어내는 무거운 정적과는 상관없이 그림 속의 도시는 치열한 전장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 어둡고 우울한 풍경에서 바그너의 비장한 음표들을 또한 읽고 듣는다. 전장에서 죽거나 혹은 다친 사람들의 영혼을 운반하는 발퀴레들, 그들이 타고가는 날개달린 말들의 발자국 소리를.

감각(感覺)

유상훈 · 연극배우



연극에서 청각적 효과는 그 비중이 매우 큰 듯하다. 무대 위에서 외모는 차치하더라도 열성적이고 진정 어린 대사를 듣다보면 그 배우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사진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서 공연한 부산시립극단의 '십이야')

난 좀 시각보다 청각적인 모양이다. 가까운 사물이나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 않는 편이다. 어릴 적부터 딱히 뭘 바라본다기보다는 먼 산을 바라보듯 시선을 던지던 기억이 많다. 사람을 만나도 시선을 잘 나누지 않는 편이다. 사람을 똑바로 마주본다는 일은 참 우스운 일이었다. 그래서 마주치면 실실 웃다가 오해도 많이 왔다.

삼 형제 중 두 형제가 안경을 쓰는데 나만 이 안경을 끼지 않는다. 그럴밖에 시신경이 피로할 일이 없었기에 당연한 결과라. 그러나

가까이 수많은 활자의 나열인 공부인들 잘 했겠는가... 대신에 잡다한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다 보니 기억에 남는 시각들은 또한 평생 잊지 못하기도 한다.

연극에서 청각적 효과는 그 비중이 매우 큰 듯하다. 무대 위에서 외모는 차치하더라도 열성적이고 진정 어린 대사를 듣다보면 그 배우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 반면에 준비가 부실한 공연을 보다보면 간혹 음악이 나올 때 음악이란 참 놀라운 구조의 완벽성을 띄고 있구나 하고 비교하게 된다. 공연이란 시간에 쫓겨서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주제로 이어지는 음악일 수도 있겠다. 연극 공연과 함께 쓰이는 음악들은 그 공연의 색깔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공연을 입하는 배우에게도 알게 모르게 정서적 영향을 끼친다. 공연 5분 전 무대 뒤에서 듣는 예비음악, 그리고 막간음악, 음향효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땐 모르지만 음악이 바뀌거나 잠시순간 늦거나 빨라도 공연이 끝나고 배우는 그 이유를 스탭진에게서 해명 받기를 원한다.

무대효과 조정실엔 음향과 조명을 조정하는 두 부분이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간발의 시간차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조명은 용납되나 음향은 그것이 용납이 안될 정도로 표가 난다. 총소리, 전화벨소리, 절정을 치닫는 효과음들이 터져 나오는 1초의 차이는 이생전생을 다녀올 만큼이나 길다.

연습장에서 밀도 높은 연습을 하다보면 감각이 예민해져간다. 아무도 없는 수영 풀장에 발가락 하나 담그면 그 파장이 퍼져 나가듯이 작은 소리나 움직임도 동일한 공간에서는 영향을 미친다. 한 공간에서 주연습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석에서 핸드폰을 속삭이고 툭툭 작은 장난이 오고간다면 그것은 마치 두

세 개의 음악을 동시에 틀어놓는 고문이 된다. 공간에서의 집중력이란 몰두하여 다른 것을 잊는게 아니라 재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조차 인식되어지는 포괄적인 열립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배우는 공간 속에 말의 울림을 채워가다 보면 자신은 비워져간다. 거기에 오감의 자극을 받게되면 거미 줄처럼 퍼져나가는 관계성이 형성된다. 기억의 정보란 늘상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주류(主流)의 무엇을 붙잡고 지속적인 이미지의 확장과 혹은 일탈, 관련, 유추를 하여 무언가를 형성해 가는 작가적 산출(production)과는 달리 배우에게는 관련된 기억을, 감성을, 의지를, 영감을 공간에다 써버림으로서 자기라는 통이 형성된다. 그 통에서 소리인 말이 울려나온다.

라디오 청취율이 높던 시절 한 낮의 프로 '김삿자 북한방랑기'나 밤 10시 경 오감을 저리며 들던 '전설 따라 삼천리', 심야의 약간은 일탈의 자유를 만끽하던 '별이 빛나는 밤에' 혹은 명화극장 같은 TV프로의 전주(前主)음악들은 경험의 정서적 기억을 쉬이 불러일으키게 했었다. 소리의 정서적 기억이 어디 음악뿐이겠는가. 빗소리, 물소리, 종소리, 바람소리 날 부르던 그 사람의 목소리...

지하철을 타다보면 가끔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떠드는 소리에 조용히 하라고 일갈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 곁에는 귀에는 뭘 쫓고 손에는 뭘 들고 끊임없이 푹푹 찌어대는 이가 있다. 지상과 방송, 신문, 책 가지가지 등속을 여념없이 바라보고 있는 이들,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핸드폰 통화를 멈추지 않는 이, 잠든 이, 녀 나간 듯 허공을 주시하는 이 등등. 눈과 귀가 닫힌 헬렌 켈러가 변화한 도심 한가운데서 후각과 촉각과 인식으로만 행인들을 감지하며 그들 하나 하나의 모습에 무한한 긍정적 이유를 피력하던 그녀의 글이 생각난다. 생활 속의 한 면이다. 아무튼 오감 육감을 통한 자극과 반응은 시간의 차이로 과정의 차이로, 의식의 혼돈과 고통을 불러일으키게도 하지만 인생여정을 채우는 커다란 작용임과 동시에 배우 기능의 총체적 통로이기도 하다.

한여름 무더위에 열에 들뜬 감각들이 차분히 다시 자리잡을 가을이 온다. 밤이면 풀벌레 요란하고 낮이면 갈대숲 이속한 맑은 그림자 더 높을 가을이 온다. 쳐다볼 수 없던 더운 하늘. 이제는 우러르며 본래의 가슴 한구석 이고있던 자아를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가을이 온다. 충만한 열매 익어 가는 은총 속에 극장마다 공연예약으로 꽉 차 공연할 장소가 없어 공연을 미룰 가을이 온다. 누군들 저만치 겨울과 지나온 여름을 깨끗이 이고 온 누리 퍼져있는 현재에 깊게 깊게 젖어들 가을이 온다. 어찌 생산(production)이 생존을 위한 노동만의 이유가 아닌 가을이 온다. 한여름 쏟아지던 빗줄기는 물방울만이 비가 아니라 비와 비 사이 그리고 빗소리도 비였듯이 자극과 자극 사이,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조차 조용히 짊어볼 수 있을 가을이 온다.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미술을 통해 논술, 과학, 수학, 사회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 소리는 어떤 색, 어떤 모양일까? 새로운 형태의 음악, 미술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지적, 감성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창의력을 키우는 '아츠 스쿨(Arts School)'이 부산에 첫 문을 열었다. 바로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가 기장군청과 해운대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기장군 일광면에 소재한 일광초등학교 폐교 학리분교에 동지를 튼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지난 6월부터 격주 주말을 이용해 '바우하우스 미술'과 '꿈따콩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학리분교를 들어서면 도시 속 작은 학교가 마냥 신기하게 보인다. 행정구역상 부산이지만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보다 작고 아담한 학교는 1년 넘게 방치되다가 주말에 아이들로 북적이게 된 것.

"80명 정원에 400여명의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릴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워 깜짝 놀랐다"는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 하진욱 사무국장. 결국 당초 4개였던 학급을 8개로 늘리면서 인원을

160명으로 뽑게 되었다는 그는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반증"이라 생각한다.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는 격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씩 펼쳐진다. 방학과 휴가기간이 겹친 8월 한달간을 제외하고는 100% 가까운 출석율을 자랑할만큼 참가자들의 열의가 뜨겁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바우하우스 미술'과 '꿈따콩 음악'은 음악과 미술의 기본 원리에서 실기까지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창조와 통합이라는 예술적 특성을 활용해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통합교육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하우스 미술'은 건축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는 '친구야! 집 지어줄게~', 건축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신문지의 비밀~!', 공간과 색, 빛의 관계를 체험하는 '알록달록 벽을 만들자', 구조와 힘의 작용을 이해하는 '다





새로운 형태의 음악, 미술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바우하우스 미술'과 '공딱쿵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만들기' 등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술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상에서 만들기까지 전 과정을 모듈별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딱쿵 음악'은 청각예술인 음악과 시각예술인 미술을 접목시켜 창의성을 극대화한 프로그램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어린이들은 노래가사 만들기, 숫자 실로폰 연주하기, 노래와 폴라주 표현, 데칼코마니와 이야기 만들기, 실로폰과 벨플라이트 연주하기 등의 수업을 받고 있으며,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고학년 어린이들은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들으며 주제 악기 색칠하기, 바다에 관한 음악듣고 상상하기, 자연을 주제로 한 음악을 신체로 표현하기, 그룹으로 악보보며 합주하기, 다양한 악기 사용하여 곡 완성하기 등의 어린이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음악놀이(?)를 하고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온 학부모들을 위해 교육기간동안에는 '학부모교양강좌'가 무료로 열리고 있다. 자녀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바우하우스 미술' 수강자 학부모들은 유화 그리기를, '공딱쿵 음악' 수강자 학부모들은 타악기를 함께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음악체험을 함께 한다.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를 우연히 보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천인주 씨.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 자녀를 둔 그는 평소 접할 수 없는 체계적이면서도 알찬 프로그램에, 무엇보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 부모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감사하다는 천인주씨는 격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인의 강요(?)에 억지로 참여했다는 배은정 씨. 3학년, 1학년 자녀를 데리고 한주 한주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누구보다 열성적인 참가자가 됐다는 그는 수업 후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보다 아이들과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한다.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올해 11월 24일이면 6개월의 모든 교육과정이 끝난다. 올해는 문화관광부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와 부산시, 기장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내년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터라 아카데미 개설이 불투명하기만 하다.

"알찬 프로그램이라 자신하고 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기대를 걸어본다"는 하진욱 사무처장은 장기적으로 '아츠 스쿨(Arts School)'을 설립하는데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가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미처 등록하지 못한 학생들이라도 수업참관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문의/(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918-9181, www.cahrdc.org)

찾아가는 공연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펼치는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부산여성문화회관이 운영하는 문화교실 수료생들로 구성된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훈훈한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훈훈한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는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부산여성문화회관이 운영하는 문화교실을 수료한 주부들로 구성된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소외

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현재 한국무용과 가야금, 민요판소리, 풍물 등 우리의 전통국악과 에어로빅, 서예 등 6개 장르의 예술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봉사단별로 매년 30회가 넘는 무대에 선다는 예술봉사단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복지시설원생, 정신병동 등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무대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랑의 달 5월이면 일주일에 5일은 무대에 설 정도로, 그들의 찾아가는 공연은 이웃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단원들은 정규반과 숙련반을 거쳐 평균 5년 이상 교육과정을 밟은, 기량에서도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매주 한차례 수업과 두차례 연습시간을 갖는 이들은 지난해 8월에는 봉사자가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으로서 제대로 된 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첫 번째 정기공연을 갖기도 했다. '이웃사랑 四色 국악향연'이란 타이틀로 열린 정기공연에서는 한국무용, 가야금, 민요판소리, 풍물 등 전통국악 예술단 단원들이 출연,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제 2회 이웃사랑 四色 국악향연'은 오는 9월 5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야금제

주 '침향무'와 진주검무, 가야금병창 '사철가, 동해바다', 부채춤, 창극 '이몽룡이 춘향을 만날 때에는...', 웃다리 풍물 등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을 펼친다.

최근 들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에도 초청받고 있는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특히 지난 2005년에는 부산-베트남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축하공연을 비롯 부산-북해도 교류협체 체결 기념 축하공연,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축제 통신사 행렬 재현 등 민간교류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도 풍물, 민요판소리, 한국무용 단원 58명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 '에도를 향하는 문화대축제'에 참가, 통신사 행렬 재현에 참가하고 시모노세키 시민회관에서 열린 무대공연을 통해 흥겨운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해 일본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페스티벌 2007' 행사에도 가야금 예술봉사단이 초청받아 민간사절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문에서 판소리 강좌 광고를 보고 부산여성문화회관과 인연을 맺게 된 유두자 씨. 올해로 예술봉사단 단원으로 활동한지 8년째 접어들다는 그는 공연 후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하거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이웃을 볼 때마다 봉사단 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

올해로 단원생활 7년째 접어들다는 성정현 씨는 한국무용단 팀장을 맡고 있다. 한 가정의 주부로, 시간 내기가 가장 힘들었지만 곁에서 이해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많은 힘이 되었다는 그는 특히 무용을 전공한 전공자로, 예술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봉사단 활동이 즐겁기만 하다.

지인의 소개로 가야금을 배우면서 부산여성문화회관과 인연을 맺은 양경선 씨.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는 미국, 일본에서 가진 해외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긍지를 느끼고 배울 수 있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사물놀이팀에서 썰과리를 맡고 있는 박정숙 씨는 썰과리 채를 잡은지 벌써 8년째다. 어느새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문화센터, 동사무소 등에 강의를 나갈 정도로 그를 찾는 사람이 많다. 박정숙 씨는 친정감은 이 곳 예술봉사단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문의/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320-8341~4)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월 5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두번째 정기공연을 갖는 예술봉사단이 연습에 한창이다.



우리의 전통국악과 에어로빅, 서예 등 6개 장르로 구성된 예술봉사단은 매년 30회가 넘는 무대에 서고 있다.

이태리음악연구회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 가을 이태리 음악의 향연에 초대합니다



1987년 창단된 이태리음악연구회는 감미로운 이태리 음악을 발굴하고 소개해 왔다. 사진은 연습실에 모인 회원들.(좌로부터 박찬, 김태형, 이윤정, 윤민화, 정거화, 강학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여름날,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들이 연습실에 모였다.

10월 1일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들은 올 여름 시원한 계곡과 바다 대신에 연습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태리음악연구회가 어느새 20살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태리 가곡은 노랫말이 부드러워 노래 부르는 성악가들이나 청중들에게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 20주년 무대는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이태리 음악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밀 예정입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7년을 바쁘게 보내고 있는 테너 강학운 씨는 여름휴가도 없이 회원들과 20주년 기념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와 부산에서 이탈리아 음악을 소개하고 가꾸고 있는 음악인들의 모임인 이태리음악연구회는 1987년 봄, 김경학, 전이순, 민상순과 고(故) 박홍조씨 등 4명이 모여 창단했다. 당시는 성악동우회 성격이 강했고 활동한지 10년 즈음에 피아노 전공자들을 영입하면서 성악연구회로 모임의 성격을 바꾸고 그동안 이탈리아 가곡과 오페라를 연구하고 발표해왔다.

회장 강학운씨는 지난 1989년 입단한 초창기 멤버다. 1987년 창단 당시 강학운 씨는 이태리 유학중이었다. 그동안 故 박홍조 선생을 비롯하여 김홍진, 김경학, 이득수, 민상순, 차미소란, 한남식, 장원상 씨가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태리라는 인연으로 모인 만큼 전 세대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연구하고 연주회를 꾸려나간다. 현재 36명 회원 중에 신진범, 장원상 회원과 임영금, 정거화 회원, 김민정, 고영호 회원이 부부이다.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 회원과 20주년 기념 무대에서 객원으로 반주를 맡게 된 피아니스트 윤민화 씨도 부부

이다.

부산음악계에 많은 공헌을 한 초기 유학과 멤버들은 어느새 우리 음악계의 원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제자의 제자들이 이태리 유학 후 귀국 해 3대(?)가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으니 세월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젊은 회원들은 회원이 되어 음악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어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이다. 이태리음악연구회는 이태리 정규 국립음악원 졸업과 회원 과반수 동의라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회원이 될 수 있다.



20주년 기념공연은 오페라 이중창과 중창, 합창을 들려준다.

회원들의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강

학운 씨는 이번 20주년 기념 무대를 준비하면서 전 회원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레퍼토리 구상으로 고민이 많았다. 모두의 의견을 모아 1부는 오페라 2중창으로, 2부는 중창과 합창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연습이 한창이다. 중창은 함께 무대에 서는 회원이 연습일정을 맞추고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다. 8월 28일은 전체 연습 일정이 잡혀있다.

20주년 무대 마지막은 4대 회장을 지낸 이득수 회원이 지휘하는 합창으로 끝맺는다. 선생님이자 대선배와 함께 하는 무대인만큼 30대 신세대 회원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태리음악연구회는 원래 20주년 기념공연으로 오페라 작품을 올리고 싶었지만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연구회이다 보니 예산이라는 큰 벽 때문에 오페라 무대는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협찬을 받기도 쉽지 않으니 큰 무대 준비는 회원들의 부담이 크다.

대신 이번 공연은 2대의 피아노로 기존 음악회와 다른 웅장함을 더하고 무대는 이태리 분위기로 특별히 세트를 제작해 음악회 분위기를 새롭게 꾸민다. 피아노는 차미소란, 정미선, 안선애, 윤민화 씨가 맡는다.

“이태리음악연구회가 20주년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30주년, 40주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지요. 아직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소개하지 못한 곡들을 더 많이 발췌해 감미로운 이태리 음악으로 오래도록 만나고 싶습니다.”

8중창을 준비하는 정거화, 김태형, 박찬 씨가 ‘아, 목동아’ ‘언덕위의 집’ ‘향기 품은 군사우편’으로 연습장 분위기를 돋운다.

행주치마 씻은 손에 받은 입 소식은/전선에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군사우편 적혀 있는 전선 편지에/전해주던 배달부가 싸리문도 못가서/복 바치는 기쁨에 나는 울었소/

학구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이태리음악연구회가 청중들을 위해 서비스로 준비하는 레퍼토리, ‘향기 품은 군사우편’.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도 즐거운 가을 음악의 향연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보자.

넘치는 카리스마로 14억 중국인을 감동시킨 지휘자 리 신차오



중국의 촉망받는 지휘자 리 신차오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객원 지휘자로 부산음악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저와 가까운 음악 친구가 부산에 있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이 처음이지만, 여러 음악인들과 부산의 음악 팬들께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몇 년전, 많은 한국 연주자들과 일을 한 기억을 떠올리며 부산 연주에 기대에 차 있는 리 신차오는 전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젊은 거장이다. 올해 나이 36세. 그는 22세인 1993년 중국 중앙음악학교 재학 중 제 1회 중국국립지휘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1997년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제 45회 부장송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해 14억

중국인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오스트리아 유학을 미치고 1999년 중국으로 돌아온 리 신차오는 중국국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전 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참가국의 국가를 연주하게 될 중국국립교향악단(China National Orchestra)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리 신차오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연주회에 대해 질문을 하니 흔쾌히 지난해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열린 아시안 프렌들리 콘서트라고 답한다.

“일본 연주자, 한국 연주자, 중국 연주자(저죠..)가 함께하는 특별 오케스트라였죠. 연주회가 정말 특별했죠.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연주했는데, 연주가 끝나고 친구들과 몇몇 한국 연주자들이 함께 파티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번 부산연주에서는 그가 좋아하는 특별히 리하르트들(리하르트 바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선곡해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들려준다. 부산방문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소중한 음악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한다.

“올해는 아시아와 유럽을 돌며,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공연을 할 겁니다. 나이가 아직 젊은 만큼, 더욱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없이 노력하는 신세대 지휘자 리 신차오. 그와의 만남이 더욱 기다려진다.

제자들과 음악 사랑에 빠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최연소로 서울대학교 교수에 임용되어 화제를 모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은 각별한 도시입니다. 부모님의 고향이 부산이고, 조부모님과 친척들이 부산에 살고 있어 부산이 제 2의 고향 같아요.”

4세부터 피아노를 시작한 백주영씨는 2년간 피아노를 배우다 바이올린을 배웠다. 2000년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에서 450여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해 전문 연주자의 길로 들어선 그는 2002년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센터에서 열린 뉴욕 챔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서 당시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었던 쿠르트 마주어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 백주영씨는 평소 즐겨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을 협연한다.

“이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절친한 친구이자 당대의 최고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레오폴드 아우어에게 헌정된 곡이었는데, 차이코프스키가 이 곡을 작곡하자 아우어는 너무나 어려워서 연주불가능하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곡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비루투오소적인 테크닉과 감미로운 음악성 모두를 요구하는 대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대를 지휘하는 리 신차오는 2002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중국국립교향악단의 연주회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놀라운 무대를 보여준 그에 대한 인상이 깊었는데, 2006년 3월, 중국 국립교향악단의 첫 번째 내한공연 때 지휘자와 협연자로 다시 만났다.

교육자, 연주자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바쁜 만큼 즐거움도 크다. 그는 대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연마된 실력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지도하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

“좀더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연주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연주 또한 게을리 할 수 없어 활발한 연주활동도 병행하고 있는데, 바쁘지만 두 가지 모두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외 시간이 나면 빵과 과자 만들기를 즐긴다는 그는 앞으로 드넓은 세계를 무대로 계속 연주하고 음반작업을 가지며 제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연주자로 남고 싶다.

부산문화회관 특별 기획공연 윤이상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 초연

9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적인 작곡가 故 윤이상 선생.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故 윤이상선생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윤이상의 음악세계가 집대성된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가 오는 9월 2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한국 초연된다.

1987년 윤이상 선생의 전성기에 작곡된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큰 스케일의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땅과 민족의 아픈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한국적인 곡이라 서양사람들이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 세계 어느 연주단체도 쉽게 연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세계적인 지휘자 김병화 지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립교향악단, 낙원합창단이 초연했을 뿐 아직 국내무대에서

는 연주되지 않았다.

이번 초연무대는 세계적인 지휘자 곽승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등 230여명이 연주한다. 솔리스트로는 특별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출신 중국 최고 성악가 소프라노 림정과 테너 김영철을 비롯 메조소프라노 정옥심, 바리톤 우주호가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9월 윤이상(1917-1995) 선생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윤이상평화재단 주최로 열리는 ‘2007 윤이상 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페스티벌 일정 중 유일하게 지역에서 열리게 된다.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초연 무대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은 윤이상 선생과 부산과의 인연 때문에 가능했다. 음악청년기 시절 그의 고향 통영보다도 부산에서 교육자로, 음악가로 많은 세월을 보낸 윤이상 선생은 부산에서 부산 토박이인 부인 이수자여사



소프라노 림정



테너 김영철



메조소프라노 정옥심



바리톤 우주호

를 만났다.

윤이상 선생의 전성기인 1987년 작곡된 이 작품은 박두진, 고은, 김남주, 문익환, 문병란, 백기완 등의 민족시 11편에 곡을 붙인 성악곡으로 분단 민족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노래한다. 1악장 '역사', 2악장 '현실(1)', 3악장 '현실(2)', 4악장 '미래'로 구성되며 연주시간은 45분이다. 까르미나 브라나를 작곡한 칼 오르프의 부인으로 우리에게 문인으로 더 잘 알려진 독일의 <루이제 린저>는 그의 저서 '용의 귀환'에서 까르미나 브라나를 뛰어넘는 대서사곡이라 극찬하기도 했다.

윤이상 선생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작곡 후 작품설명에 "언젠가 한번은 민족을 위한,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안겨질 곡을 쓰고 싶었다. 이 곡은 나의 양심에서 참을 수 없어 터져 나온 곡이다. 이것으로써 <광주여 영원히!>와 함께 나는 작곡가로서 우리 민족에게 바치는 나의 절절한 호소와 충정을 표시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선생은 남한의 초연 무대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루어 지지 않은 아쉬움을 글로 남겼다.

"...이 곡의 초연은 남한에서 하는 게 이상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할 리가 없다. 그래서 1987년 10월 4일 평양에서 행해진 것이다. 남한의 민족시인들의 절절한 부르짖음이 분단된 내 나라 이북에 메아리쳐, 좌우의 정치적 현실을 초월하여, 민족의 쓰라린 심정이 38선을 뛰어 넘어, 똑같이 호흡하고 눈물로 민족의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 초연무대를 지휘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박승.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한울림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이번 한국 초연 무대를 위해 조선족 출신 성악가 소프라노 림정과 테너 김영철이 부산을 찾는다. 소프라노 림정은 중국 조선족음악연구회 부회장, 길림성 문련 부주석, 연변음악협회 부주석, 현재 중앙민족대학 음악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제 6기 프랑스마르세유 국제오페라대회에 입상한 것을 비롯 조선 '4월의 봄' 국제예술절에서 세차례 특별 금상 수상, 제21기 세계청년 우호제 금상, 제 1차 '중화가회' 성악대회 벨칸토 제 1위, 전국소수민족성악대회 벨칸토 제 1위 등 묵직한 상들을 거머쥔 소프라노 림정은 우아하면서도 통속적이고 분방하면서도 섬세한 소프라노로 알려져 있다. 테너 김영철은 북경시 청년연합회위원, 중국조선족음악연구회 부회장, 중국음악학원 부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최고의 테너 중 한사람이다. 김영철은 1990년 중국 청년가수 TV 대상 벨칸토그룹 3위를 시작으로 중국소수민족성악대회 2위, 중국청년가수 TV대상 3위, 프랑스 파리 국제성악콩쿠르 남성그룹 최고상, 스페인 빌바오 국제성악콩쿠르 1위, 세계중국인성악대회 1등상 등을 수상하고 러시아, 이태리, 프랑스, 일본, 한국, 조선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 왔다. 김영철은 2001년 7월 한국에서 오페라 <순향선>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소프라노 림정과 테너 김영철은 연변출신 최고의 가수로 중국 북경음악홀에서 듀오공연을 갖기도 했다.

메조소프라노 정옥심은 고신대학교 종교음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성악과, 벨기에 왕립음대 성악과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정옥심은 바흐의 요한수난곡, 마태수난곡, 헨델의 메시아 등 다수의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활동했다.

또 다른 솔리스트 바리톤 우주호는 드라마틱한 음색의 바리톤으로 국내 음악팬들과는 친숙한 연주자다. 1996년 국제 라투리 불피 콩쿠르 3위 입상 및 프란체스코 국제콩쿠르 1위 입상, 비나스 국제콩쿠르 특별상 등 6개 콩쿠르에 두각을 나타낸 우주호는 로마국립극장(브란카초)에서 <라 트라비아타>와 <팔리아치>로 데뷔한 이후 RAI국영 방송국, 텔레트레 방송 등의 초청 공연으로 이태리 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우주호는 베르디와 푸치니 음악과 가사에서 오는 극적표현을 잘 하는 바리톤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입장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 학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학생석 제외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한울림합창단(466-197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2회 정기연주회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가을의 서정을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9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20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 내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젊은 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2005년 서울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부임하여 화제를 모았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45와 아들 지크프리트를 낳아준 아내의 생일선물로 바쳐진, 바그너의 명곡 '지크프리트 목가', 화려하면서도 퇴폐적인 상류사회의 분위기를 빈 왈츠를 활용해 묘사한 슈트라우스의 모음곡 '장미의 기사' 등이 연주된다.

1993년 제 1회 국립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이듬해 중국 중앙음악원을 졸업한 리 신차오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국립오페라 발레극장 수석지휘자로 활동하다 1999년 중국 국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중국 국립가극장 음악감독으로 임명됐다. 2002년 중국 국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일본과 호주,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순회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그는 2002년 대만 타이페이 국립콘서트홀에서 역사적인 데뷔공연을 가졌으며, 2003년 거장 로스트로포비치와 함께 다시 대만을 찾아 로스트로포비치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지휘자'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순회연주회를 이끈 리 신차오는 특히 미국 연주 후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터 등로부터 '힘이 넘치는 지휘자로 그들만의 표현으로 설득하면서 서구 스타일을 놓지 않고 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초연 당시 '기술상 연주가 불가능한 곡'으로 단정되기도 했던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를 들려줄 협연자 백주영은 1995년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콩쿠르 입상을 시작으로 파가니니, 킹스빌, 룽티보 등 유명 국제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해 세계 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백주영은 1997년 제 2회 국제 동아콩쿠르 1위에 이어 이듬해 미국 최고 권위의 인디애나폴리스 국제콩쿠르에서 4개의 특별상과 3위 입상, 2001년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으로 우리나라를 빛냈다. 특히 지난 2000년에는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오디션에서 450여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 본격적인 전문연주자로 도약했다. 2002년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센터에서 열린 뉴욕 챔버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서 당시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던 쿠르트 마주어로부터 극찬을 받는 등 백주영은 주요 연주회마다 성공을 거두면서 국제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리 신차오



백주영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제 5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7

9월 11일-9월 13일 화-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창작국악관현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7년 무대가 9월 11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각 시도의 실력있는 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해 각 지역만의 특색있는 창작곡들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대구시립국악단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출연해 흥겨운 창작국악축제를 펼친다. 사흘동안 축제의 1부는 초청단체가 연주하고 2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다.

첫 날인 11일에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해 축제의 첫 막을 연다. 지난 1999년 8월 창단 후 그동안 정기공연을 비롯 찾아가는 예술단, 지역 순회공연, 해외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특히 대관령 국제음악제, 강릉단오제, 속초 설악미니콘서트 등 강원도를 알리는 문화행사에 출연하면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자리매김왔다.

국립국악원 단원 및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청주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한 상임지휘자 신영균의 지휘로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을 갖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강원도와 태백산맥 산간지역에서 발생한 선율 '아라리'의 민요 '한오백년'과 '강원도아리랑'의 선율에 리듬과 화성적 옷을 입힌 국악관현악을 위한 '아라리(이준호 곡)',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 선율에 박자와 리듬, 조성을 변화시킨 변주곡 관현악을 위한 '아리랑(최성환 편곡)', 높고 푸른 가을하늘의 아름다운 정취를 그린 해금협주곡 '추상(이경섭 곡)'을 들려준다. '추상(이경섭 곡)'은 중요무형문화제 이수자이자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단원으로 있는 해금주자 박취임이 협연한다.

12일에는 호남을 대표하는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전북도립국악원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하고 국악실내악단 '소리고을' 대표로 있는 단장 겸 지휘자 류장영이 이끄는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드넓은 평야를 선율로 담아낸 '공야의 숨결(강상구 곡)'를 첫 곡으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파미르고원의 광활한 초원과 사막의 아름다움을 그린 중국 작곡가 조제군의 소금협주곡

‘파미르고원의 수상곡(조제균 곡)’,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쑥대머리(조재수 편곡)’, 힘찬 태평소 소리로 시작하여 타악의 역동적인 리듬과 멜로디로 끝은 맺는 2006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위촉곡 ‘공(空)놀이(이경섭 곡)’, 춤꾼의 발디딤에 장단을 실어내어 소박한 고향을 벌인 듯한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2002년 위촉곡 ‘벗으로 사는 세상(이경섭 곡)’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소금협주곡 ‘파미르고원의 수상곡’은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소금주자로 있는 조용오가,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쑥대머리’는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부수석인 장문희가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대구시립국악단

마지막날인 13일에는 1984년 창단 이후 우리 전통음악 전승과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에 힘쓴 대구시립국악단이 휘날레를 장식한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정기연주회를 비롯 특별연주회, 해외 및 지방 순회공연, 영호남교류연주회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선도해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년 1월부터 국악단을 이끌고 있는 상임지휘자 주영위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산회상’ 중 8번째 곡인 ‘타령’을 주제로 감정을 절제한 중용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첫곡 ‘타령주제에 의한 협주곡(이성천 곡)’에 이어 전라도의 진도아리랑과 경상도의 밀양아리랑을 주제로 다양한 변주와 새로운 화성적 전개를 통해 우리 아리랑의 아름다움과 흥겨움을 더한 ‘남도아리랑(백대웅 곡)’, 사람과 자연의 일체화를 지향하는 우리민족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백두대간을 표현한 ‘백두대간(백성기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사흘동안 매일 2부 무대에서 창작위촉곡을 연주한다. 첫날인 11일에는 창작관현악 ‘空感(이지영 곡)’과 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 ‘추억의 동백섬(백성기 곡)’을, 12일에는 2007년 축제 위촉곡인 유은선 작곡의 창작관현악과 2005년 제 3회 축제 위촉곡인 창작관현악 ‘축제의 향연(김선 곡)’을, 마지막날은 심청가 주제에 의한 창작관현악 ‘청이야(윤명원 곡)’, 창작국악관현악을 위한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조원행 곡)’을 들려준다. 11일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 정선희(소리)가, 13일은 단원 최영훈(아쟁)이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입장료: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대극장

Feel the Legend of Musical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일-2일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3:00, 7:00



브로드웨이 정통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부산 공연.

1957년 9월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당시 734회 장기 공연 흥행기록을 세웠다.

- 연출/이원종
- 출연/윤영석, 송용태, 홍록기, 소냐, 장덕덕, 김아선, 유나영, 김소향, 김덕환, 윤덕선, 배준선, 이태희

입장료 VIP석 80,000원 · R석 70,000원
S석 60,000원 · A석 50,000원
B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www.anticket.co.kr)

유럽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역 가수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
오페라 갈라 콘서트

3일 월요일 오후 7:30



유럽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역 가수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

에리카 콰트 성악콩쿠르 1위, 로베르트 슈틀츠 콩쿠르 관객상, 브레머하펜 관객상을 수상하고 도르트문트 오페라하우스에서 활동

한 부산출신의 소프라노 박은주, 프랑코 코렐리 국제 성악 콩쿠르, 벨기에 베르비에 성악 콩쿠르,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2008년 한국인 테너로는 최초로 라스칼라 극장 무대에서는 테너 이정원, 세계 3대 오페라단의 하나로 꼽히는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에서 한국인으로는 현재 유일하게 전속 가수로 활동 중인 테너 요셉강, 하노버 국립극장 주역가수로 활동 중인 바리톤 유진호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학생석 10,000원

문의 솔오페라단(1544-9373)

글로리콰이어 제 17회 정기연주회

4일 화요일 오후 7:30



1982년 6월 창단(당시 할렐루야 합창단) 이후 25년 동안 16회의 정기연주회, 100여회의 교회순례찬양, 70여회의 연주회를 가졌던 글로리콰이어의 제 17회 정기연주회.

글로리콰이어는 행복환자를 위한 봉사 및 미자립교회후원,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하여 사회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합창 하나! '은혜의 노래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 당신을 향한 노래
합창 둘! '추억의 노래들' /한계령(최석태 편곡), 우리의 사랑의 필요한 거조(조우현 편곡)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리콰이어(010-7556-5006)

동래한량춤 부산무형문화재 제 14호 기념공연

5일 수요일 오후 7:30

2005년 12월 부산무형문화재 제 14호로 지정된 동래한량춤의 전승 보급을 위해 원로



예인들이 함께 마련하는 기념공연.

동래한량춤은 동래의 지역색이 강하고, 독특한 춤가락이 가미된 남성춤이다.

프로그램
문장원 '동래입춤'

이매방 '살풀이춤', 엄옥자 '태평무', 김은경 '산조춤', 김진홍 '동한량춤 및 지전춤 공연' 부산시립무용단 '동래한량춤공연' '오고무' 김진홍 전통춤 연구회 '열림굿'

입장료 초대
문의 김진홍전통춤연구회(646-0845, 011-841-4882)

부산예술제 2007 개막식 및 가곡과 아리아의 밤

7일 금요일 오후 7:30



가을 문화의 달을 맞아 펼쳐지는 부산예술제 2007년 개막식과 함께 부산음악협회 회원들이 아름다운 가곡과 아리아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글린카/루스란과 루드밀라 서곡
현제명/오페라 '춘향전' 중 '옥중 사랑가'
롯데시/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험담은 바람처럼' 등 수곡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이기균)
출연
베이스 김태형,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박차, 소프라노 고예정, 소프라노 박현정, 테너 이홍덕, 테너 오동주, 바리톤 고봉수 외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광역시음악협회(634-1295)

2007 정신헌무용단 전통춤 레퍼토리 수려(秀麗)

8일 토요일 오후 7:00

20~30대의 젊은 무용수로 구성된 '정신헌무용단'이 선보이는 전통춤 레퍼토리 '수려(秀麗)'.



젊은 전통춤
들의 열정이 살아
있는 이번 무대는
김명자(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
춤, 제27호 승무
전수조교), 이명자
(무형문화재 제92
호 태평무 전수조

교), 김영숙(평양예술학교 1기 졸업, 최승희
직계), 김묘선(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
조교) 등 전통춤의 원로, 중진의 자문을
얻어 계파를 떠난 다양한 춤사위를 한 무대
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예술감독/정신혜 · 연출/조주현
- 지도, 훈련/구성심, 박혜경

출연

정신혜, 이남희, 구성심, 하현정, 박혜경, 최
지은, 김수진, 성지혜, 류선하, 정숙희, 노연
정, 이순지, 김예리, 오선경, 맹안나 외

- 연주/젊은소리 '쟁이' (대표/박준식)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정신혜(999-6286, 010-3851-
6325)

동국예술기획

제 5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9일 일요일 오후 7:30

18년간 한국전통무대의 예술혼을 이끌어
온 동국예술기획 '명인명무전' 2007년 무
대.

전통예술무대를 대표하는 예능보유자를
비롯, 원로와 중진들이 한 무대에서 한국의
멋과 맛을 보여주는 이번 무대는 3월 7일



서울 서초동 국립
국악원 예약당 첫
무대를 시작으로
목포, 울산을 거
쳐 9월 부산에서
마련된다.

작품
김덕명(연등나래
살풀이춤), 김진

홍(영남살풀이춤), 최선(호남살풀이춤), 송준
영(남도살풀이춤), 권명화(대구살풀이춤), 엄
옥자(원향살풀이춤), 이길주(살풀이춤), 도살
풀이춤(양길순)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10,000원

문의 동국예술기획(02-2278-5452,
011-223-0022)

**제 5회 부산전국 창작국악
관현악축제 2007**

11일-13일 화-목요일 오후 7:30

각 시도 국악관현악단의 특색있는 창작국
악관현악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부산
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7.

올해로 5회를 맞는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
악축제는 각 지역 연주단체를 초청, 지역의
독특한 음악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무대이
다.

- 제 1일-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프로그램

이준호/관현악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아라
리'

최성환/관현악곡 '아리랑'

이지영/창작관현악 '空. 感' (2007년 제 5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위촉
곡)

백성기/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 '추억의 동
백섬' (2007년 제 5회 부산전국창작
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 등

- 지휘/신영균(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 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
단 수석지휘자)
- 해금/박취임(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부수
석단원)
- 소리/박성희,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
단 부수석단원)

- 제 2일-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

프로그램

강상구/광야의 숨결

조재수 편곡/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쑥대머
리'

이경섭/공(空)놀이(2006년 전주세계소리축
제 개막위촉곡)

유은선/창작관현악(2007년 제 5회 부산전
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 등

- 지휘/류장영(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상
임지휘자), 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
악단 수석지휘자)
- 소금/조용오(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단원)
- 판소리/장문희(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부
수석)

- 제 3일-대구시립국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
악단

프로그램

이성천/합주곡 5번 '타령주제에 의한 협주곡'

백대웅/남도아리랑

백성기/백두대간

윤명원/심청가 주제에 의한 창작관현악 '청
이야' (2007년 제 5회 부산전국창작
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1 816-0089
- 사직동 오피스 : 0511 506-7332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조원행/창작국악관현악을 위한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 (2007년 제 5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
 · 지휘/주영위(대구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소아쟁/최영훈(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2회 정기연주회

14일 금요일 오후 7:30



20세의 나이로 중국 센트럴 필하모닉, 상하이 심포니와 같은 중국 내의 모든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연주했던 중국 지휘자 리신차오와 200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최연소 교수로 부임하여 화제를 모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함께 하는 가을 음악회.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바그너/지크프리트 목가

R.슈트라우스/장미의 기사 모음곡

· 지휘/리 신차오

· 협연/백주영(바이올린, 서울대학교 교수)

· 해설/곽근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2007 가을 음악회

5인 성악가가 들려주는 가을...
 오페라 여형

17일 월요일 오후 7:30



풍성한 가을 부산오페라양상블과 함께하는 2007 가을 음악회.

부산오페라양상블의 창단공연으로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5인의 성악가(소프라노 배수진,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경, 바리톤 박대웅, 베이스 바리톤 김도형)가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양상블 등으로 가을밤의 풍성한 오페라이야기를 들려준다.

출연

소프라노 배수진,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경, 바리톤 박대웅, 베이스 바리톤 김도형

입장료 VIP석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부산오페라양상블(747-1567, 010-3038-7191)

2007 열정과 정열의 테너
 오동주 콘서트

18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내 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이태리 루이자 단논피오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산성악 아카데미, 이태리 음악연구회, 양산 교사합창단 지휘

자로 활동을 펼치고 이있는 테너 오동주 콘서트.

프로그램

토스티 가곡/열여라,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최후의 노래, 당신을 사랑하고파

스페인의 열정적인 가곡/그라나다, 당신의 사랑 없이는

베르디/오페라 '오텔로' 중 '밤은 깊어가고' 등 수곡

· 특별출연/소프라노 오미선(국립오페라단

상근단원), 바리톤 안상철(고려아 오페라단 단장)

· 사회/안희성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오동주(017-556-5058)

부산문화회관 특별 기획공연

윤이상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20일 목요일 오후 8:00

세계적 작곡가 故 윤이상선생의 음악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 초연무대.

부산광역시와 윤이상평화재단 공동주최로 열리는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1987년 작곡된 곡으로 박두진, 고은, 김남주, 문익환, 문병란, 백기완, 양성우, 박봉우 등 민족시 11편에 곡을 붙여 분단 민족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 지휘/곽승

· 오케스트라/부산시립교향악단, 타악기 객원주자 30명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 솔리스트/림정(소프라노), 정옥심(메조소프라노), 김영철(테너), 우주호(바리톤)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학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학생생석 제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70)
 한울림합창단(466-1978)

창단 25주년 기념

부산가톨릭합창단 제28회 정기연주회

-Missa di Gloria -
 Giacomo Puccini-

22일 토요일 오후 7:30

창단 25주년을 맞은 부산가톨릭합창단의 제28회 정기연주회.

천주교 부산교구 소속단체로 1982년 창단된 부산가톨릭합창단은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 출전하여 무반주 종교음악부분 은상을 수상한대 이어

2004년 제4회 탐라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연출/안지환(신라대 음악과 교수, 그랜드
오페라단 단장)

· 지휘/이성훈(상임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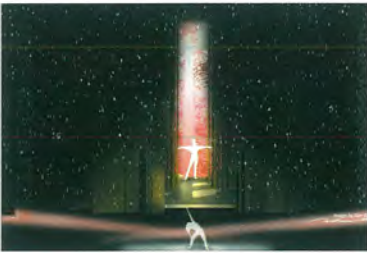
· 연주/뉴프라이오케스트라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가톨릭합창단(510-0512, 019-
517-3664)

부산교구 절정 50주년 기념 연극 '불씨'

28일~30일 금~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2년에 걸친 희곡 작업과 1년에 걸친 준비
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천주교 부산교구의
이번 무대는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조선시대 정조 때의 순교자
'김범우'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 작/이규정

· 총 연출/조옥중(신부, 제1회 전국대학연극
제 연출상 수상)

· 예술감독/이중근(동서대학교 교수)

출연

박찬영, 이돈희, 이혁우(이상 부산시립극단
배우), 구원모(뮤지컬 배우), 백길성(극단 시
나위 배우), 김근수(극단 열린무대 배우 겸

극장장), 박경숙(작가, 프리랜서 배우), 이재
원, 이영창, 김상균, 권우영(이상 가톨릭교회
신부들), 그 외 부산/울산 지역의 배우 40
여 명 출연

입장료 균일 3,000원

문의 가톨릭 연극인회(010-5527-2776),
가톨릭센터(462-1870)

중극장

부산YMCA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YMCA, 가을의 빛장을 열다-
1일 토요일 오후 7:30



1998년 창단된 부산YMCA오케스트라의
제9회 정기연주회.

부산YMCA오케스트라는 음악실기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사회적 음악활
동을 통해 음악의 저변확대 및 미래의 음악
청중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프로그램

주페/경기병 서곡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베토벤/교향곡 제 1번 작품 21, 어린이를
위한 노래모음 등

· 지휘/장진

입장료 초대

문의 김지은(010-4870-3808)

이라희 바이올린 독주회

2일 일요일 오후 7:30

2004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음악원 최
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귀국독주회
를 가진 이라희의 두번째 독주회.

프로그램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작품45
라벨/치간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등

· 피아노/유영욱

입장료 초대

문의 이라희(010-4604-7040)

백승태 작곡발표회

-대우스님, 성각스님의 산의 마음, 어머니-

3일 월요일 오후 7:30



작곡모임 향천
회, 김해음악협회
지부장, 동주대학
겸임교수로 활동
하고 있는 작곡
가 백승태의 작
곡 발표회.

이번 무대는 대
우스님과 성각스

님의 시에 곡을 부친 가곡과 합창곡들을 발
표한다.

프로그램

그리운이여(대우 작시), 세상은 마음 그림자
(대우 작시), 운암선정(성각 작시), 어느덧
내 모습은 산이 되어(성각 작시) 견성(성각

작시), 겨울 나그네(최종섭 작시), 마음이 부
처라면(대우작시) 등 수곡

연주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 (대표)

245-2714 (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탈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평도원터지, 경주월드, 평안리월드 연중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3월까지의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장원상(테너), 성정하(소프라노), 김소형(피아노), 서숙지(피아노)
 · 합창/수련합창단 · 계명암합창단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백승태(018-244-1723)

제 2회 이웃사랑
 四色 국악향연

5일 수요일 오후 7:30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노력해온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이웃사랑 4색 국악향연'. 부산여성문화회관 국악강좌를 수료한 수강생들로

구성된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가야금, 한국무용, 풍물, 민요판소리 등 4개 부분의 단원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 가야금 제주(齊奏) / 침향무 (沈香舞)
- 한국무용/진주검무
- 가야금 병창 / 사철가, 동해바다
- 한국무용/허튼춤, 부채춤 등 수곡
- 총연출/박동민(부산연극협회이사)
- 국악지도/신은주, 황지인, 이선구, 이향희
- 사회/김애란
- 찬조출연/강봉천, 신재현, 이성준, 이바디
- 예술단(모듬북), 헤미르예술단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여성문화회관(320-834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0회 정기연주회

-스트링 인 코리아-

9일 일요일 오후 7:30

현악 중심의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정규 2관 편성의 오케스트라로 확대·개편되면서 2006년 새롭게 태어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0회 정기연주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젊은 연주자들의 음악열정으로 의욕적인 무대를 열어

오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1번 K.136
 브리튼/단순교향곡
 비발디/두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다단조 등 수곡
 · 지휘/박중휘
 · 협연/최영준, 김기도(첼로)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7-8088)

이명진 첼로 독주회
 10일 월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교수로,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와 실내악단 화음의 멤버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명진 독주회.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학교를 수석 졸업한 후 슈투트가르트 국립학교에서 동양인 최초로 세계적인 러시아 교수 Natalia Gutman에게 사사하며 Solistenklasse(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첼리스트 이명진은 독일 폴크방 콩쿠르에서 16년 만에 첼로 부문이 대상을 거머쥐는 기록을 남겼다.

프로그램
 베토벤/첼로 소나타 2번 사단조 작품 5
 마르티누/룻시니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브람스/첼로 소나타 2번 바장조 작품 99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동아대학교 음악학부(240-2853)

부산콘서트 콰이어
 세계평화를 위한 음악회 시즌 I
 평화를 그리는 음악회
 1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콰이어가 들려주는 세계평화를 위한 음악회 시즌 I '평화를 그리는 음악회'.

부산콘서트콰이어는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사회 각 계층의 소외된 외로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공연 수익금은 복지재단에 전액을 기부하여 도시락을 통한 사랑을 전달한다.

- 지휘/전상철(부산콘서트콰이어 상임지휘자)
- 반주/박경미, 현미경
- 연주/부산콘서트콰이어
- 특별출연/플루티스트 오영인, 테너 허동권
- 우정출연/바울남성합창단, 사론헨드차임선교단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콘서트 콰이어(010-6506-0226)

로고현대무용단
 제 17회 정기공연

12일 수요일 오후 7:30



1990년 동아대학교 현대무용 동인단체로 창단한 로고현대무용단의 제 17회 정기공연.

프로그램

- 스무살 소년의 꿈(안무/손영일)
- 꿈꾸는 나무, 미친 봄날(안무/김현정)
- 하우스(안무/지영경)
- 예술감독 및 연출/장정운

출연

손영일, 최정식, 김현정, 지영경, 이상미, 윤기나, 허소희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손영일(011-581-2156)

2007 향천회 작품 발표회

13일 목요일 오후 7:30

1982년 창단 이후 매년 창작 음악을 발표해온 향천회의 2007년 작품 발표회.

프로그램

유종호/야상곡(유종호시)
 최유란/금잔디(김소월시)
 김나나/나의 사랑
 송필석/Piano Sole를 위한 순천만
 최천희/소프라노와 클라리넷, 피아노에 의한 가을밤의 비(한운성 시) 등 수곡 연주
 구현진(소프라노), 황성학(테너), 한남식(테너), 임병원(바이올린), 김판수(첼로), 서숙지(피아노), 이수민(피아노)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백승태(018-244-1723)

최석태(019-623-1547)

2007 부산무용예술제 - 무대예술제

15일 토요일 오후 6:00

2007 부산예술제를 기념해 부산의 춤꾼들이 선보이는 무용예술제. 한국무용, 현대무용, 벨리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한국무용 춤, 동지 '태평무(한영숙류)' (출연/심지영, 양현숙, 강미선, 송선숙 외)
 현대무용 Crayon Dance Project '천국의 계단' (안무/이대건 · 출연/김하나, 송희진, 김유진, 지경민, 차순형)
 한국무용 김진홍 전통춤연구회 '지전춤' (안무/김진홍 · 출연/김진홍, 홍복순, 장선

희, 김필분, 이영아, 김규남, 도유정 외)
 벨리댄스 최채연 정통벨리댄스 무용단 'Secret of Harem(하렘의 비밀)' (안무/최채연 · 출연/최채연, 곽명주, 민지혜, 송은, 조봉애 외)
 한국무용 서지영무용단 '신풀이 모듬' (안무/서지영 · 출연/이다경, 강수나, 방정남, 황재심, 신환희, 김지현, 이수혜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부산무용협회 사무국(632-5116)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집 발매기념 이연화 피아노 독주회 'Ultimate Challenge'

16일 일요일 오후 5:00



'뛰어난 테크닉과 악곡 해석법으로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의 언어를 형상화시키는 추진력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중견 피아니스트 이연화

의 부산 연주회.

이번 무대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일본 및 호주에서 현지의 제작진과 함께 녹음하여 2007년 8월 국내 및 아시아 최초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집 CD를 SONY BMG 레이블로 출시하는 이연화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집 음반 발매기념 무대이다.

프로그램

피아노 소나타 제 17번 라단조 작품 31의 2 '템페스트', 피아노 소나타 제 14번 올림다

단조 작품 27의 2 '월광' 등

입장료 VIP석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10,000원

문의 뮤직필(02-706-1481~2, www.musicphil.co.kr)

제 13회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일 월요일 오후 7:30



1998년 젊은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제13회 정기연주회.

마산시립교향악단 백진현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부산 창작관현악 작곡콩쿠르 대상 작품과 고전음악을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2007 부산창작관 · 현악 작곡콩쿨 대상작품 모차르트/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V.365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K.216 등 · 지휘/백진현(신라대학교 교수,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피아노/유은숙(영남대학교 교수), 안영희(부산예술대 교수)
 · 바이올린/나훤 에어리히(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교수)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백진현(011-503-9541)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 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돈가스 ₩6,000원 (디저트 포함)

★3단샌드위치+원두커피 ₩6,0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독우회 정기연주회

19일 수요일 오후 7:30

독일에서 공부한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독우회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V.448(375a)

라벨/라 발스

아렌스키/모음곡 작품 15

· 연주/이문숙, 김현정, 박윤희, 이현주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최석태 작곡발표회

20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와 동대학원,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 최석태의 작곡발표회.

유학 전 2차례 작곡발표회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최석태는 독일 유학 중 다름슈타트현대음악제,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 등 크고 작은 음악제에 참가하여 음악의 깊이를 넓혀왔다.

프로그램

내원암 산길따라, 금정산의 밤, 낙동강을 보며, 그림음, 민들레, 이 가을, 홍살문, 갈보리 사랑, 참 좋으신 주님, 종달새, 나무 숲, 청보리밭, 섬초롱, 어머니와 나

· 테너/장원상(경성대학교 교수)

· 피아노/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최석태(019-623-1547)

창립 21주년 어울림 국악 연구회 제 14회 정기연주회

22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 최초의 민간 국악공연 연구단체로 출발한 어울림국악연구회가 들려주는 제 14회 정기연주회.

어울림국악연구회는 정기공연을 비롯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 후쿠오카 초청공

연, 복지단체 순회공연 등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관현합주 평조희상 중 '중령산', 관악합주 '보허자', 현악합주 '황하청', 생황, 단소병주 '세령산', 거문고 독주, 가야금제주 '침향무', 단소제주 '동요모음곡'

입장료 무료

문의 어울림국악연구회(467-7975, 019-548-5418)

원희선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2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상트 페테스부르크 국립음악원,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한 바이올

리니스트 원희선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타르티니/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Abandon Didone'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바장조 작품 24 'Spring'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김문주 피아노 독주회

2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와 독일 Freiburg 국립음대 KA(전문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UM 2(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문주 독주회.

김문주는 독일, 네덜란드, 부산에서 독주

회를 비롯 서울 Piastra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작곡 교수발표회 연주, An-ti Stimmung 연주, 부산 피아노듀오협회, 독우회 다수의 무대에 서 왔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나단조 Hob.32

프로코피에프/소나타 가단조 작품 28

슈만/다윗동맹무곡 작품 6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문주(294-8374, 010-6488-8375)

2007년 문예진흥기금 선정작

김정원의 춤 두번째 이야기

30일 일요일 오후 6:00



춤소리에술단 대표, 한얼정악창무극단 예술감독, 극단 에저또 안무가로 연극, 뮤지컬, 무용극, 창극, 시조창무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춤꾼 김정원의 두 번째 춤 이야기.

김정원은 한밭 국악전국대회 명무부 최우수상, 전국개천예술제 최우수상,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도자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살풀이, 산조(춤/김정원)

판소리(소리/왕기석 · 교수/남상일)

승무(춤/김정원)

풍물굿(출연/이바디예술단)

장구놀이, 상모(출연/최의철)

소고춤(출연/춤소리 예술단)

영남교방무(춤/김정원)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김정원(017-567-8071)

소극장

2007 제 2회

부산청소년플루트 음악축제

7일 금요일 오후 7:30

고운 심성과 아름답고 착한 성품의 청소년

년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부산청소년 플루트 축제 두번째 무대.

올해는 장림, 중현, 분포, 연신, 웅문, 초량, 다선, 백운, 남문 등 초등학교생 150여명이 참가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모음곡
하이든/세레나데, 장난감 교향곡
바흐/미뉴엣 등 수곡

· 특별출연/소리테플루트 앙상블

입장료 초대

문의 이경희(011-558-7824)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나 비도비치 내한 콘서트**

16일 일요일 오후 4:00



완벽한 테크닉과 미모를 겸비한 마법과 같은 매력의 소유자, 세계가 주목하는 클래식 기타계의 라이징 스타로 2004년 첫 내한 콘서트를 가졌던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나 비도비치(Ana Vidovic) 부산연주회.

안나 비도비치는 이태리 Fernando Sor Competition, 스페인 Francisco Tarrega Competition에서의 1위 수상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프로그램

소르/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주제에 의한 서주와 주제와 변주곡 작품 9
토로바/소나티나

알베니즈/Asturias(Leyenda) 등 수곡

· 특별출연/클래식기타리스트 홍상기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주)프로아트(02-585-2934)

신문범 판소리 고법발표회

17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사)새울전통타악진흥회 부산지회장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타악주자 신문범이 부산타악 연주자로서

는 처음으로 들려주는 판소리고법발표회.

프로그램

적벽가(소리/한승석 · 교수/신문범)
고성(鼓聲)(연주/(사)부산새울전통타악진흥회 회원일동)

수궁가(소리/박성희 · 교수/신문범)

출연

신문범, 박성희(가무악의 공유 대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한승석(창작타악그룹 '푸리' 동인, (사)부산새울전통타악진흥회 회원(이봉우, 이경희, 박소희, 권보름, 최정욱, 권두솔)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신문범(016-557-6058)

**부산문화의 달 기념
극단 누리에 특별공연 '적의 화장법'**

19일-21일 수-금요일 오후 7:30

프랑스 베스트셀러작가 아멜리 노통브의



소설을 무대화 한 극단 누리에의 연극 '적의 화장법'.

인간의 양면성을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충격적 표현법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갑작스런 비행기 고장으로

출발시간이 연기되어 공항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사벨에게 다가온 택셀이 전하는 황당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 연출/강성우

출연

최성희, 김미정, 김태훈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사랑티켓 참가 작품)

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부산문화의 달 기념
극단 애저포 특별공연
'묻지마 육남매'**

10월 2일-5일 화-금요일 오후 7:30

병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소년소녀가장이 된 억수이가 오빠와 동생을 돌보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려낸 '묻지마 육남매'.

우리의 60~70년대 이야기를 통해 향수를 불러 일으켜 따뜻한 가족애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준다.

· 연출/최재민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 작품)

문의 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2007년 문예진흥기금 선정작

김정원의 춤 두번째 이야기

- 9월 30일(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연극, 뮤지컬, 무용극, 창극, 시조창무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춤꾼 김정원의 두번째 춤 이야기

■ **프로그램**

살풀이, 산조, 승무, 소고춤, 영남교방무 등

■ **문의** : 김정원(017-567-8071)



- 음악
- 연극
- 무용
- 아동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극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울속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부산정가회 제 6회 정기공연 가사·시조의 밤

1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시조, 가사, 가곡 등 우리의 전통 노래인 정가를 보급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결성된 부산정가회의 6번째 정기공연.

프로그램

가사/상사별곡, 백구사, 황계사, 춘연곡
평시조/만수산, 청산은
사설시조/청려장 짓고
여창지름시조/청초야 등 수곡

입장료 무료

문의 문금자(019-559-6119)

해운대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음악회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1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헨델의 대표작이자 종교음악의 백미로 꼽히는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마련되는 해운대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음악회.

- 지휘/전상건
- 오르간/이은숙 · 피아노/김명숙
- 협연/이지영, 이하정(소프라노), 강연희(알토), 우중수(테너), 이병웅(베이스)

입장료 초대

문의 해운대교회(747-0091)

Lout acer Cello! (Good Evening Cello!)

2일 일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현재 대학에서 음악수업을 받고있는 젊은 연주자 4인이 마련한 우정의 무대.

프로그램

엘가/첼로협주곡
피아졸라/탱고
포퍼/레퀴엠 등 수곡

- 첼로/이종현(차이코프스키음악원 재학), 천정민(경희대학교 재학), 김진명(국민대학교 재학)
- 피아노/최영민(부산대학교 재학)

입장료 무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신포니에타 제 60회 정기연주회

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현재 유럽 음악계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안드레이 비엘로우와 함께하는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세계적 권위의 롱 티보 국제 바이올린콩쿠르에서 2등상과 관객상, 현대음악 해석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유명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한 바 있는 안드레이 비엘로우는 현재 독일 하노버 음악예술학교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모차르트/아이네 클라리네 나흐트 무직
텔레만/동키호테 등

- 리더/김영희
- 협연/안드레이 비엘로우(바이올린)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문의 김영희(011-9519-0448)

이은옥 바이올린 리사이틀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이자 프로뮤지카, 비루투오조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독

일 도르트문트음대를 졸업한 이은옥은 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실내악4중주 'Color' 창단멤버를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슈만/소나타 제 1번 가단조 작품 105
차이코프스키/왈츠 스케르초 작품 34
베토벤/소나타 제 7번 작품 30 제 2번 등
· 피아노/윤유진 · 하프/김영림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단 루카스 트롬본 리사이틀

4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현재 보스턴음대 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트롬본 솔리스트 단 루카스 초청연주회.

영국 길드홀음대에서 브라스 연주자로서는 처음

으로 Premeir Prix Diploma상을 받은 단

루카스는 프랑스 Toulon 국제 솔로경연대회 결승, 프랭크 스미스 국제트롬본협회 솔로경연대회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 특별출연/부산트롬본앙상블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류진수(011-838-4291)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4일 박은주, 배지현 포핸즈

프랑스 파리고등 사범음악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박은주, 배지현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11일 카잘라 트리오 연주회



첼리스트 조여진, 클라리네티스트 방 디, 피아니스트 민강은으로 구성된 카잘라 트리오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트리오 제 4번 내림나장조 작품 11
브람스/트리오 가단조 작품 114 등

■18일 Play Baroque Only Violin

바흐, 비발디, 텔레만 등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주는 바로크 음악의 세계.

· 출연/박정현, 김수현, 박설미, 홍기정, 이지, 윤승하, 박선미, 이왕희, 박은지

■26일 피아니스트 정소영, 비올리스트 양지은 조인트 리사이틀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에 있는 피아니스트 정소영과 쾰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에 있는 비올리스트 양지은의 듀오무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26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5일 황남용 클라리넷 독주회



영남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부퍼탈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이 들려주는 클라리넷과 함께하는 가을밤의 오페라.

· 찬조출연/이지영(메조소프라노), 김진희(피아노)

■12일 가을에 떠나는 성악여행

초가을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성악곡으로 마련되는 가을에 떠나는 성악여행.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숙중, 메조소프라노 강행순, 테너 이상재



가수 '비'가 녹음하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 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부산에 있습니다.
_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 2007년 하반기 대관 신청 중
공연/녹음/음반제작/제자발표/마스터클래스/세미나

GloVil Art Hall

607-06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기획팀
051+505+5995 | glovil@paran.com | www.glovil.org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 피아노/이윤란 · 해설/고봉수

■ 19일 시와 음악이 만나는 가을밤의 향연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창작 성악곡 무
대로 마련되는 시와 음악의 만남.

프로그램

하순봉/가을의 시(강은교 시)
이상근/기다림(유지환 시)
제갈삼/파랑새(한하운 시)
이창룡/바람처럼 떠나야지(김상훈 시) 등 수록
· 시 해설/김상훈
· 출연/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이창룡, 테
너 정광

· 피아노/제갈삼, 차미소란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제 5회 하늘소리 풍물패 정기공연 및 불자의 밤

4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지난 2002년 결성된 후 4차례의 정기공연
및 위문공연,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
온 아마추어 풍물패 하늘소리의 다섯 번째 정
기공연.

프로그램

복춤 추는 세상, 달마가 복을 친 까닭은?,
비나리와 성주풀이, 동심이 치는 자연의 소
리, 천지오행을 몸짓에 운기하여 등

입장료 무료

문의 김동현(017-545-7786)

일파가야금합주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6년 결성된 이후 그동안 전통음악 계승
과 새로운 창작곡 및 연주곡 개발에 힘써온
일파가야금합주단의 10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향제줄풍류 중 '염불·타령', 클라리넷과
25현가야금을 위한 중주곡 '새만금 살풀
이', 25현가야금 협주곡 '벚노래' 등 수록
· 출연/장혜숙, 김효정, 장경미, 박소원, 고윤
이, 이수경, 정란영, 박정은, 권자경,
한하경, 조연희, 이선혜, 황수임 외
· 찬조출연/손경균(클라리넷), 홍희철(거문고)
· 사회/오지영(탤런트)

입장료 균일 10,000원(예매/티케팅)

문의 일파가야금합주단(582-9119)

김연화 바순 귀국 독주회

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따뜻한 음색을 지
닌 바순의 매력만
큼 중저음의 다이
나믹하고 매력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바순리스트
김연화 귀국 독주
회.

연세대학교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를 졸
업한 김연화는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연주자로 활동중이다.

프로그램

텔레마/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바단조
고든 자콰/솔로 바순을 위한 파르티타
생상/소나타 작품 168 등
· 피아노/심정자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김성은 플룻 클래스 발표회

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음대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수료
한 플루티스트 김성은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연주회.

· 출연/백서연, 조수진, 정다운, 엄호정, 김보
민, 이나리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박필은 피아노 독주회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
학과와 독일 프라이
부르크 국립음대,
윈스터 국립음대 전
문연주자과정, 뒤셀
도르프 국립음대 최
고연주자과정을 졸
업한 피아니스트 박

필은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라단조 작품 31 제 2번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의 춤곡
슈만/교향곡적 에튀드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최민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
학과와 독일 트로
싱겐 국립음대, 네
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오스
트리아 빈국립음대
를 졸업하고 그동
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치밀함과 대범함을 고루 갖춘 연주자
라는 평가를 받아온 피아니스트 최민경 귀
국 독주회.

프로그램

메시앙/새의 카탈로그 중 제 11곡 '말뚝가리'
모차르트/피아노 환타지 라단조 KV. 397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최민경(010-9496-2687)

소프라노 김성경 귀국 독창회

11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러시아 Ufa 국립예술음악원을 졸업하고
불가리아 콩쿠르 디플로마, 국제 러시아

Almuhametov 콩쿠르 2위에 입상한 바 있는 소프라노 김성경 귀국 독창회.

입장료 초대
문의 중앙음악신문사(011-864-1928)

칸타빌레 정기 연주회

Relax, Detail, Energy

12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9명의 남성 솔리스트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남성(男聲) 솔로와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그리그/페르귄트 모음곡 중 '오제의 죽음'
포스터/꿈길에서
존 레논/오브라디 오브라다 등 수곡
· 음악감독/양종모
· 출연/김길수(단장), 허동권, 심정보, 이흥덕, 이상철, 윤정윤, 안상철, 박기범, 이은민
· 피아노/박기덕, 최영민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안상철(010-2400-5271)

오페라 비밀결혼

14일 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물결 결혼한 한 쌍의 연인을 둘러싼 좌충우돌 해프닝을 유쾌한 그린 치마로사의 오페라 '비밀결혼'.

일반 오페라와 달리 연극적인 대사가 많아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 지휘/박종희 · 연출/유희문

· 출연/소프라노 이재란, 김미정, 임혜정,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황성학, 바리톤 전병근, 베이스 정용욱 외
· 연주/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입장료 VIP 20,000원 · R석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2)

부산타악기 교사연구회 제 2회 정기연주회

14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2004년 9월 부산지역 교사들로 결성된 부산타악기 교사연구회의 두 번째 정기공연.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여름'
영화음악모음/미선임파서블, 더 엔터테이너, 컨서퍼러시
스트라우스/라데츠키 행진곡 등 수곡

입장료 무료
문의 이동철(010-4666-6802)

아리아와 함께하는 무도회

15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벨칸투스 성악연구회와 댄스스포츠협회

회원들이 출연, 한국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테마로 한 살사, 차차차, 자이브, 탱고, 왈츠 등 다양한 장르의 스포츠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크로스오버 무대.

입장료 특별 20,000원 · 일반 10,000원(공연 하루전까지 예매시 50% 할인)
문의 이수정(011-393-5118)

부산예술제 2007-가무악의 하나됨 2007 국악대향연

15일 토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기악, 민요, 판소리, 시조창,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2007 국악대향연.

프로그램
기악시나위, 남도민요 '농부가', 무용 '태평성대', 동초제 판소리 중 '사랑가', 가야금 병창 '단가' 중 '공명가', 민요 '새타령' (강명옥외), 대북과 사자놀음 등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부산국악협회(644-5211)

신현희 피아노 독주회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busan-aquarium.com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고신대학교와 독일 아헨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글로벌 콘서바토리 교수, 독우회 회원, 경남 듀오협회 회원으로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신현희 독주회.

프로그램

하이든/변주곡 Hob.6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 춤곡

슈만/비인 사육제 작품 26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앙상블 클라시앙과 함께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18일 화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금정문화회관에서 해운대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갖는 앙상블 클라시앙과 함께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현악 4중주 제 1번 작품 11

바그너/클라리넷과 현악 5중주를 위한 아다지오

브람스/헝가리안 댄스 작품 5 등 수곡

· 출연/앙상블 클라시앙, 블루클라시앙

합창단, 테너 김지호, 배우 박리용

입장료 균일 20,000원(예매시 20% 할인)

문의 앙상블 클라시앙(506-6305)

최태연 피아노 독주회

18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서든 일리



노이대학교와 오클라호마대학교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최태연은 수차례 독주회와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피아노연주

등에 출연해왔다.

프로그램

바흐/토카타 마단조 BWV.914

모차르트/소나타 내림나장조 K.333

쇼스타코비치/24 프렐류드 작품 34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최태연(010-4801-4967)

I Sognatori 'Delli speranza'

동아 8인 음악회

20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이태리어로 '꿈꾸는 이들'이란 뜻으로,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성악전공자 8인으로 구성된 I Sognatori의 무대.

도니제티, 베르디, 푸치니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출연/강미래, 권승욱, 김원경, 김현, 손혜

은, 이소연, 이정윤, 조현정

· 특별출연/양재우, 문태은

· 피아노/전형진

입장료 초대

문의 강미래(018-617-1125)

김선화 피아노 리사이틀

-The Way of My Life--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 클링카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



안 러시아와 국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선화 독주회.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테마

와 변주곡 바장조

작품 19 제 6번

베토벤/클라비어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109

쇼팽/환타지 바단조 작품 49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공연기획(626-6664)

가곡과 아리아의 밤

2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성악가 민상순, 박미경, 강학운, 이은미, 전영모, 고영호, 임충진, 정거화, 김종화와 피아니스트 최성근이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드보르작/달의 노래

베르디/ '리골레토' 중 '그리운 이름이여'

민요/거문도 뱃노래 등 수곡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이은미(010-8277-4746)

방효준 바이올린 리사이틀

-그 남자의 가을-

2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미국 메네스음악원과 뉴욕주립대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방효준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5번 'Spring'

이차이/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 2번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 등

· 출연/이은옥(바이올린), 이지선(피아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조이플룻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28일 **금요일** 오후 7: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지역 음악교사들로 결성된 조이플룻 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공연.

- 지도/김명자 · 피아노/박정호
- 드럼/장휘진 · 더블베이스/박희철

입장료 초대

문의 엄영민(011-9058-2722)

테너 김성진 독창회-시월애

10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풍부한 성량과 밝은 미성, 화려한 테크닉의 소유자인 테너 김성진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의 대표적인 가곡집 '시인의 사랑'

전곡과 사랑을 주제로 한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한명희 인생 60년, 벗들과 함께

10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울해로 음악인생 60년을 맞은 부산대학교 한명희 교수가 음악적 동반자이자 친구인 연주자들과 함께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

프로그램

- 리스트-모차르트/돈 주앙의 회상
-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다장조 K.521
- 브람스/헝가리안 댄스 등 수곡
- 피아노/제갈삼, 한동일, 신수정, 박종화
- 플룻/박성희 · 테너/장원상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연극

구민주 모노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8월 23일(목)-9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자살증후군이라는 현대인의 심리 저변에



나타나는 일상을 통해 삶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노드라마.

· 작/이훈주 · 연출/호민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8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10:30
9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7:00
9월 2일 **일요일** 오후 3:00,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6년 한국뮤지컬 대상 작품상, 음악작곡상 등 4개부문을 수상,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았던 창작뮤지컬로,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입장료 1층 44,000원 · 2층 33,000원

문의 (주)코엔(1544-3164)

심야공포스릴러 오래된 아이

8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9:50,
9월 1일 **토요일** 오후 7:00, 9:50,
2일 **일요일** 오후 6:00, 9: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사소한 의심이 발전하여 치명적인 상황에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우/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이송하여보통환·입원치료를받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학급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 고리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알남동 34번지 602-702

대표전화 (051) 990-6114
전화예약 (051) 990-6900
응급의료센터 (051) 9906-119
알바당검진센터 (051) 990-5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8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6155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이르는 과정을 공포스릴러로 그려낸 작품.

- 작, 연출/오승수
- 출연/박종상, 허선행, 김남희, 우진식 외

입장료 균일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SM기획(442-6500)

2007년 제 4회 광대연극제

뮤지컬 두근두근

8월 31일(금)-10월 3일(수)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30, 7:30(월요일, 9/24일~9/26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한없이 외로운 남자와 상처받은 여자의 사랑이야기를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풀어낸 만화같은 카툰 뮤지컬.

- 작, 연출/정세혁
- 작곡/이동호 · 안무/유범상
- 출연/이규형, 정혜진, 조신제, 신미영, 민병관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부산연극협회 합동공연 행복한 죽음

5일 수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5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6일 일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소극장

육체의 죽음과 정신적인 죽음, 그리고 사회적인 죽음 등 세가지 죽음을 다룬 '행복한 죽음'은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이야기들을 통해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 작, 연출/오치운
- 출연/신미선, 김혜정, 박상규, 나종기, 장민, 염기덕

입장료 VIP 20,000원 · R석 10,000원(시민회관 공연/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2)
부산연극협회(645-3759)

남경주의 All That Musical

8일 토요일 오후 7:30, 9일 일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대극장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 스타 남경주와 떠오르는 뮤지컬 스타 16인이 펼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국내 창작뮤지컬까지 13개 뮤지컬 작품에서 발췌된 넘버곡들이 화려한 무대와 조명아래 펼쳐진다.

입장료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피의 결혼

8일(토)-1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환상적 리얼리즘 문학으로 손꼽히는 스페인작가 로르카의 원작을 극화한 '피의 결혼'은 스페인의 민중문화인 짐시의 플라멩고 춤과 노래와 우리의 설창고 장단과 남도 소리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 연출/이윤택
- 출연/김소희, 이승현, 김미숙, 임정도, 김하영, 문원령, 차민영 외

입장료 균일 25,000원(사랑티켓 참가자)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2007년 제 4회 광대연극제

어머니

8일(토)-22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너른소극장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들의 질곡많은 인생을 야구중계에 빚대어 풀어낸 작품.

- 작, 연출/이동희
- 출연/강혜란, 이동희, 송민정, 오영섭, 김용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너른소극장(622-3572)

2007년 제 4회 광대연극제 마당놀이 흥부놀부전

9일-10일 일-월요일 오후 7:30
광안리해변 만남의 광장

고전소설 '흥부전'을 현실과 접목시켜 현대인이 꿈꾸는 로또대박 열풍의 허상을 꼬집은 가족 마당극.

- 작, 연출/이정남
- 출연/고인범, 심미란, 김학준, 전지숙 외

입장료 무료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2007년 부산예술제 -극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11일-13일 화-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행됐던 생체실험을 모티브로, 한 인간의 욕망이 불러일으킨 비인륜적 행위를 고발하는 내면 심리극이다.

· 작/강태욱 · 연출/오정국
· 출연/양진철, 배진만, 김성경, 백길성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2007년 제 4회 광대연극제 아니! 왜 이러세요?

13일(목)-22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액티스소극장



지금도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절찬리에 공연 중인 데이비드 매트의 '올리아니'를 번안한 작품으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 세대간의 문제, 남녀의 문제가 웃지 못할 촌극으로 펼쳐진다.

· 번안, 연출/이성규 · 출연/김진욱, 류혜린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액티스소극장(611-6616)

서툰사람들

9월 21일(금)-10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
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필요하면 다 훔치는 겁많은 도둑과 사랑에 서툰지만 웅감한 집주인의 하룻밤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의 모순과 비극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염순식, 한상민, 김지현, 최윤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무용

김미자 전통 훌춤전

5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춤과 명상을 통해 '禪'의 세계를 지향하는 연정 CHM 전임연구원으로 활동중인 춤꾼 김미자의 훌춤전.
동아무용콩쿠르 일반부 동상, 부산KBS 무용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비 있는 김미자는 그동안 '희소곡', '웃을 갈아입는 나무', '춤추는 숲', '매화향자고한래' 등의 작품을 안무했다.
프로그램
승무-회향승무, 푸른 산조, 운기(雲氣) 태평무, 춤 · 화두 영상 파노라마, 살 · 푸리
· 예술총감독/이윤재(부산대학교 교수)

· 연출/김순금(경성대학교 교수)
입장료 초대
문의 연정 CHM(011-577-5515)

2007 브니엘 무용발표회

7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브니엘국제중학교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자들이 마련하는 2007무용발표회.
작품
한국무용 '양귀비 꽃보다 붉은...' '하늘같은 삶', 현대무용 '기억하고 웃는다', 발레 '라 바야데르' 등
· 안무 및 지도/현임숙(한국무용), 박주현(현대무용), 이근희(발레)

입장료 초대
문의 박주현(011-575-2989)

남선주 첫 개인공연

-노란 손수건-

14일 금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경성대학교와 동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새얼춤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남선주는 이번 무대에서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세상의 어머니께 감사를 전하는 창작무용 '노란 손수건'을 선보인다.
· 안무/남선주 · 대본/육승업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산은행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 출연/윤지은, 구지혜, 신영지, 박소영, 송윤경, 이남정, 정은주
- 특별출연/김우석, 최우석
-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의** 남선주(011-9557-1929)
윤지은(019-507-7506)

예술공동체 마르 제 8회 퍼포먼스 몬스터

14일(금)-30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수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1998년 무용, 연극, 미술,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가들이 장르간 연대를 통한 새로운 무대실험을 펼쳐오고 있는 예술공동체 마르의 8번째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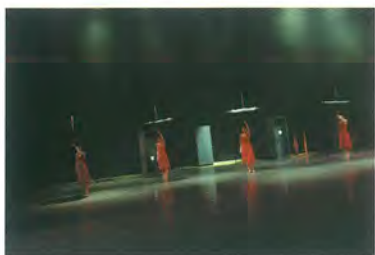
마르 대표로 있는 강희정의 안무로 올려지는 퍼포먼스 '몬스터'는 '공포'를 소재로 '나' 안에 숨겨진 타자의 정체성을 불편하게 보여준다.

- 안무/강희정 · 연출/구현철
- 출연/문라옥, 조창주, 이정임, 백선우, 강수빈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16,000원 · 12,000원)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2007 흥순아 현대춤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무용학과와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흥순아는 그동안 '자리' '동지' '길' '초콜렛 1·2' 등 창작 작품을 통해 현대에 공유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에너지를 춤으로 만들어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대를 선보여왔다.

작품

해일II:프롤로그-폭풍, 1장-인고, 2장-죽음, 3장-생명

- 안무/흥순아
- 출연/정진우, 박재현, 안선희, 박근영, 김수현, 권아름, 오윤정, 오새롬, 마상령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흥순아(019-260-9046)

제 9회 부산한국춤연구회 정기공연 금샘

10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이윤자 교수가 이끄는 부산한국춤연구회가 마련하는 9번째 정기공연.

1장 기천무, 2장 땅 하늘 바람의 축제, 3장 회향, 4장 코리아 환타지로 구성된 창작 무용 '금샘'을 선보인다.

- 예술총감독, 안무/惠園 이윤자
- 춤/임나영, 이우지, 박유경, 이서린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임나영(016-879-6090)

임현미 현대춤

Beyond the Cliff

10월 4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트러스트 현대무용단을 창단한 임현미는 그동안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 서울 바늘레 안무대회, 국립극장 기획공연, 부산국제 즉흥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부딪히는 절망의 순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유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춤으로 보여주는 'Beyond the Cliff'를 선보인다.

- 안무/임현미
- 출연/염지연, 남대우, 김태경, 조희정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원향미(016-756-1962)

영 화

다큐멘터리, 북한:북한을 바라보는 네 개의 시선

8월 28일(화)-9월 12일(수) 오전 10:30, 오후 1:00, 3:00, 5:00, 7:30(월요일 휴관) 시네마테크 부산

월북한 미군의 북한 생활을 그린 다니엘 고든 감독의 '푸른 눈의 평양시민', 조총련 간부를 지낸 아버지를 둔 양영희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 '디어 평양', 흑가이드 조선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낸 김명준 감독의 '우리 학교', '하나를 위하여' 등 영화를 통해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특별 상영전.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아 동 극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8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15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이상한 나라로 가게된 도로시가 겁쟁이 허수아비와 머리 빈 허수아비, 눈물많은 양철아저씨와 떠나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정기 회원 3,000원 할인)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2007년 제 4회 광대연극제

가족뮤지컬 황소와 도깨비

8일(토)-23일(일) 평일 오전 11:00, 주말 · 공휴일 오후 12:00, 2: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천재작가 이상이 1937년 매일신보에 발표한 유일한 동화 '황소와 도깨비'를 극화한 작품.

- 작, 연출/김만중
- 출연/김민미, 김우석, 장나윤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어린이 뮤지컬 정글북

8일-9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3일-16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정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입체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무대 속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
 · 작, 연출/이은성
 · 출연/박재춘,

신정만, 윤미진, 김아라, 박대성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2007년 제 4회 광대연극제 가족뮤지컬 토끼의 이슬이야기 II

10일 월요일 오후 6:40
 광안리해변 만남의 광장

동화 속 여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슬우화의 교훈을 얻게되는 가족뮤지컬.

· 작, 연출/김만중
 · 출연/김민미, 김우석, 장나운

입장료 무료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가족뮤지컬 B-로봇 가브타크

29일-30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KBS부산홀

곤충과 동물 모양을 본떠 만든 B-로봇의 활약상을 그린 캐릭터 뮤지컬.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문의 보라기획(1544-2132)

콘서트

이미자 콘서트

30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하늘소리(011-9513-8040)

전시

조현화랑 기획전 필립 꼬네

8월 3일(금)-9월 15일(토)
 조현화랑

문의 조현화랑(747-8835)

2007 오픈스페이스 배 유망작가 발굴전

박은생 개인전
 8월 11일(토)-9월 7일(금)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영남여성문학회 25주년 기념 시화전

9월 3일(월)-9월 5일(수)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원로작가 하반기 화백 부산전

9월 5일(목)-9월 12일(수)
 타워갤러리



서예와 한국화, 구상화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해온 하반기 화백 부산전.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배동환전

9월 7일(금)-9월 21일(금)
 김재선갤러리

문의 김재선갤러리(731-5438)

부산예술제 2007

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전

9월 8일(금)-9월 11일(화)
 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문의 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631-4111)

부산예술제 2007

제 27회 부산미술제
 9월 10일(월)-9월 16일(일)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Wrapping Cloth展

9월 11일(화)-9월 22일(토)
 크래프트스토리

문의 크래프트스토리(636-0822)

울촌 향토휴그림

9월 11일(화)-9월 16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제 8회 건축도시 사진전

9월 12일(수)-9월 15일(토)
 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문의 건축가협회 부산지회(0502-555-4455)

서양화 3인 초대전

9월 14일(금)-9월 22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부산 방과후 학교

9월 22일(토)-9월 30일(일)(9/25 일 추석은 휴관)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 정기회원소식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8/11(토) 16:00, 20:00 8/12(일) 15:00, 19:00	웨스트사이드스토리	VIP석 80,000원 · R석 70,000원 S석 60,000원 · A석 50,000원 B석 40,000원	10%	AN시티 (1644-4484)
	9/20(목) 19:30	윤이상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시민회관 대극장	9/30(일) 15:00, 18:00	이미자 콘서트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10%	(주)하늘소리 (011-9613-8040)
시민회관 소극장	9/ 8(토) 12:00, 14:00, 16:00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균일 15,000원	3,000원 할인	동그라미그리기 (818-1772)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9/16(일) 13:00, 15: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8/31(금) 19:30, 21:50 9/1(토) 19:00, 21:50 9/2(일) 18:00, 21:00	심야공포 스릴러 연극 오래된 아이	균일 30,000원	20%	SM기획 (442-6500)
가마골소극장	8/17(금)-9/2(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코믹 호러극 막무가내들	일반 25,000원 학생 20,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9/8(토)-9/16(일) 평일 19:30, 토 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피의 결혼	균일 25,000원		
	9/21(금)-10/21(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서툰사람들	일반 20,000원 학생 15,000원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터리 332-7339)

자연과 사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하늘채" 가 있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순수한 자연환경과 유엔평화공원이 내집 정원인 곳
맛진 광안대교 아강까지 당신이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문의/ 051)703-1003



아늘채
코오롱건설(주)

Recommended Performances in September

The 14th Korean Traditional Dancing Performance ' Dongrae Hanryangmu' , The 14th Busan Intangible Cultural Assets

5th(WED) September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For the diffusion and transmission of Dongrae Hanryangmu, the 14th Busan Intangible Cultural Assets, Veteran artists are gathered together to show the greatness of the dance. Dongrae Hanryangmu is a traditionally Dongrae region's male dance with unique motions. For more details: 646-0845, 011-841-4882

2007 SURYEO, Traditional Dance Repertory by Shin-Hea Jung Dance Troupe

9th(SUN) September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Elegance and graceful dance will be performed by Shin-Hea Jung Dance Troupe under the title of 'Suryeo'. The troupe always tried to inherit the elegance and grace Korean traditional dance. With their wills and desires and elder traditional dance artists' instructions and lessons, the performance will be the best chance to enjoy various repertoires of the Korean tradition.

- Art Director / Shin-Hea Jung

Ticket: R-30,000Won, S-20,000Won, A-10,000Won

For more details: 999-6286, 010-3851-6325

The 55th Korean Professional Artists Festival by Dongkuk Art Agency

21st (Tue) 7:30p.m. Busan Citizens' Hall (Main hall)

The stage will be filled with the stylish Korean tradition by the best traditional artists..

Program

Yeoundeung Narea Salpurichum, Youngnam Salpurichum, Honam Salpurichum, Namdo Salpurichum, Daegu Salpurichum, Wonhyang Salpurichum, Salpurichum, Do Salpurichum

Ticket: R-50,000Won, S-30,000Won, A-10,000Won

For more details: 02-2278-5452, 011-223-0022

2007 The 5th Busan National Creative Traditional Orchestra Music Festival

11th(TUE) - 13th(THU) September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A National Creative Traditional Orchestra Music Festival that allows us to tas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regions music in one place.

This year marks the 5th festival and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Gangwondorip Traditional Music Orchestra, Jeollabuk-do Provincial Institute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Arts

Orchestra, and Taegu Traditional Music Orchestra will be part of the event

- 1st Day: Gangwondorip Traditional Music Orchestra,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 2nd Day: Jeollabuk-do Provincial Institute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Arts Orchestra,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 3rd Day: Taegu Traditional Music Orchestra,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Ticket: All seats for 5,000Won

For more details: 607-6070, 607-611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32nd Subscription Concerts

14th(FRI) September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Li Xinciao, Principal Conductor of the China National Symphony Orchestra and Korean violinist Ju-Young Baek, a professor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ill be together with Busan Phil.

Program

P.I.Tchaikovsky/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R.Wagner/Siegfried Idyll

R.Strauss/Der Rosenkavalier Suite

- Conductor/Li Xinciao • Violin/Ju-Young Baek

Ticket: R-10,000Won, S-7,000Won, A-5,000Won

For more details: 607-6070, 607-6101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usan Metropolitan City Chorus, & Hanoollim Chorale

The first Performance of Isang YUN's Cantata- 'Mein Land, Mein Volk!'

20th(THU) September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n commemoration of the 90th anniversary of Isang Yun's birth, the first performance of Yun's Cantata - 'Mein Land, Mein Volk!' will be presented.

The Cantata-Mein Land, Mein Volk was composed in 1987 and is consists of 11 famous national poems of Du-jin Park and Nam-Ju Kim. The 45 minutes long music has 4 themes of History(Die Geschichte), Reality I(Die Realit I), Reality II(Die Realit II), and Future(Die Zukunft).

- Conductor/Sung Kwak
- Orchestra/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Chorus/Busan Metropolitan City Chorus & Hanoollim Chorale & Gimhae City Chorus

For more details: 607-6041~8, 607-6070, 466-1987

■ Translated by Hui-Sun, Chung

오페라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Johann Christoph Bach, 1700. Ein Bildnis des Herrn v. Bach
aus dem Jahr 1700. In der Originalgröße. In der Originalgröße.
Die Originalgröße ist 1700. Die Originalgröße ist 1700.

음악극 <다프네>의 작곡가
야코포 페리의 케리커처

르네상스 말기에 해당되는 1579년, 이탈리아의 피렌체, 고대 그리스식 연극(합창과 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을 공연하기 위해 시인 리눅치니(1563~1623)가 대본을 쓰고, 작곡가 야코포 페리(1561~1633), 카치니(1550~1618) 등이 협동해서 희랍신화에서 취재한 <다프네(Dafne)>라는 음악극을 만들어 냈다. 이 작품은 이들 예술가들을 이끌고 있었던 예술애호가 바르디 백작(1534- 1612)의 홀에서 상연됐다. 음악역사가들은 이 작품을 역사상 최초의 오페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악보가 전해지지는 않는다.

악보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는 이보다 21년 뒤인 1600년에 상연된 <에우리디체>인데, 제작자들은 <다프네>와 같다. 이 두 작품의 성공으로 오페라는 전 이탈리아로 번져 나갔고 점차 그 중심은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로 옮겨졌다.

그러나 근대적 개념의 진보적인 오페라를 만든 사람은 몬테베르디(1567~1643)이다. 그는 1607년에 <오르페오(La Favola d' Orfeo)>를 상연하였는데 대규모의 합창과 관현악, 무용 등이 한데 어울려 이전의 오페라와는 표현양식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으며 기악의 서주로 시작하였고 신포니아라고 하는 기악곡이 사이에 포함되었다. 18세기가 되자 오페라는 나폴리를 중심으로 번영하게 됐고 알렌산드로 스키타티(1660~1725), 페르골레지(1710~1736)같은 뛰어난 작곡가들이 등장하게 됐다. 특히 페르골레지의 <마님이 된 하녀(La Serva Padrona)>는 역사적 명곡으로 기록되고 있다. 로마에서도 오페라가 번성했으나 교황청의 세속음악에 대한 박해 정책 때문에 나폴리 정도의 상황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오페라의 발전과 융성은 지역에 따라 갖가지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베네치아에선 기악이, 나폴리에선 벨칸토창법, 로마에선 합창이 두드러진 향상을 이룩했다. 오페라는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어 프랑스의 릴리(1632~1687), 라모(1683~1764), 영국의 퍼셀(1659~1695), 독일의 슈츠(1585~1672) 등 대작곡가를 낳았다. 오페라는 탄생이후 약 2세기만에 일대 개혁을 맞게되며, 그 개혁의 주역은 글룩이다. 글룩(1714~1787)은 비록 오스트리아 출신이긴 했으나 이탈리아적 오페라가 지나치게 성악적 기교에 구속당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해서 과감하게 쓸모 없는 성악적 기교를 제거하고 극과 음악의 일치를 꾀함으로써 오페라를 훨씬 재미있는 드라마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올페오와 에우리디체> <알체스테>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 등이 글룩의 개혁 오페라들이다.

모차르트(1756~1791) 역시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이다. 그의 오페라는 이탈리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도 그 속에 독일적 에스프리를 투영시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일정한 스타일에만 머물지 않았고 오페라 부파·징스필 등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여 어느 작곡가보다도 풍부한 레퍼토리의 축적을 이룩했다.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는 오페라 역사에 빛나는 불멸의 걸작들이다.

노트르담 드 파리

이상훈 · 뮤클(뮤지컬&클래식) 운영자

2002년 겨울, 에어 프랑스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DVD를 하나 선물 받았다. 뮤지컬을 좋아하는 날 아는 그 친구가 보내온 선물은 바로 노트르담 드 파리 DVD였다. 우리나라와 재생방식이 다른 (코드2에 PAL방식) 이 작품은 한참을 연구한 끝에 볼 수 있었다.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기존 영미권 뮤지컬과는 아주 색다른, 단지 다름이라는 말 이상의 메시지가 있었고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이 뮤지컬은 이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하나가 되었다.



빅토르 위고의 원작 Notre dame de Paris 노트르담 드 파리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노트르담의 곱추의 원제목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레미제라블 역시 우리에게 장발장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아동책으로 편집되면서 등장인물 중 주인공의 이야기를 축약한데서 비롯된 듯 하다. 공교롭게도 위고의 대표작 두 작품은 각각 뮤지컬로 공연의 히트를 쳤다. 그리고 시공을 뛰어넘어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작가가 그린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그 삶이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담아 내기에 그러한 것 같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세상에 빛을 보게된 데는 극작가 빅 플라몽동과 작곡가 리차드 푹시양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빅은 이미 스타마니아로 불려온데서 최고 작사가로 그 명성을 더하고 있으며 푹시양테 역시 가수겸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노트르담 드 파리 음반의 경우 공연 전에 이미 밀리언 셀러가 되었고, 극중 대표적인 뮤지컬 넘버인 Belle의 경우 프랑스 차트에서 44주간 정상의 자리를 유지, 싱글앨범으로 300만장 이상이 판매되었다.

1998년 프랑스 팔레데 콩그레스 극장에서 초연이후 이미 14개국에서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이 노트르담 드 파리를 찾았으며, 2005년, 2006년 두차례 내한공연을 가져 국내에서도 이미 19만명이 관람을 하였다. 단기간 공연으로는 기록적인 숫자이다.

프랑스 뮤지컬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바로 전위적인 무대와 연출 그리고 주인공과 앙상블의 역할을 책임감있게 분업하여, 아크로바틱이라 불리는 전위적인 무용수와 높은 가창력을 요하는 배우들은 무대를 가득 메운다.

오는 10월 트리아아웃 형태로 이웃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이 열린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말로 이 뮤지컬을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을 본 많은 관객들은 이 작품의 한국어 공연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한다. 그렇지만 재능있는 신인들이 많이 오디션에 공모하였으며, 명성보다는 실력으로 자리매김하여 좋은 작품으로 우리 곁을 찾았으면 좋겠다.



요한나 마르찌- 바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발매되는 요한나 마르찌의 전설적인 명반인 ‘바하: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반이 드디어 96KHz/24Bit의 최신 리마스터링을 거쳐 놀랄만큼 향상된 음질로 안동림 교수의 ‘이 현장의 역사적 명반 시리즈’로 부활되었다.

“요한나 마르찌가 즐겨 연주한 곡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이나 그 중에서도 바흐의 연주는 바흐의 인간미를 살리고 다채로운 감정표현에 치중한, 친숙해지기 쉽고 알기 쉬운 바흐이다. 마르찌의 개성적인 매력은 여성다운 유연함과 따뜻하게 다가오는 친밀감, 가슴에 넘치는 청결감, 약동적인 감성을 내포한 분위기에 있다.”



이안 보스트리지 - 헨델 아리아집

우리시대 최고의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주옥같은 헨델 아리아집으로, 바흐와 쌍벽을 이루는 후기 바로크의 거성 헨델에 대한 보스트리지의 애정이 듬뿍 담긴 오페라 아리아집이다. ‘움브라 마이 푸(라르고)’ 같은 명곡들도 다수 포함되었지만, 대중적 인기도보다는 음악적으로 뛰어난 아리아들을 모아 불렀다. 매우 이지적이고 학구적인 보스트리지의 엄선으로, 이 음반을 통해 <메시아>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헨델이 얼마나 탁월한 천재 오페라 작곡가였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호상(湖上) 무대에 구축된 거대한 핏빛 조형물 일 트로바토레(DVD)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브레겐츠는 매년 여름 호수 위의 무대에서 오페라를 공연하는 페스티벌로 명성이 높다.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라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약점이 있지만 호반 무대의 원조요, 빈 필의 라이벌인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맡는다는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축제 60주년을 맞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연출가인 로버트 카슨을 초대하여 큰 스케일의 <일 트로바토레>를 꾸며냈다.

원작의 배경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카슨은 이 오페라의 무대를 현대의 거대한 정유공장으로 설정했다. 무대 전체를 압도하는 붉은 핏빛의 거대한 조형물은 이 오페라의 투쟁성과 섬뜩한 결말을 예고하며 등장인물의 위상도 재설계되었다.

즉 루나백작은 이 정유공장을 운영하는 못된 자본가요, 만리코는 공장에서 쫓겨난 종업원으로 구성된 유격대의 우두머리로서 루나 백작과 겨루는 것이다. 한창 떠오르는 미국의 드라마틱 테너 칼 태너(만리코), 그루지아 출신의 스타 소프라노 이나노 타마르(레오노라), 유고 출신의 바리톤 젤리코 루치니(루나 백작) 등은 이 오페라의 큰 스케일과 육중한 무대에 어울리는 극적인 가창을 펼친다. 배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호수는 행복한 덤이다.

-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엇갈리는 것이 <일 트로바토레>이다. 그의 다른 오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적인 스케일이 크고 가수들은 온몸의 힘을 총동원해서 목청껏 노래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시적인 오페라의 대표작이란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오페라야말로 로시니, 벨리니, 도니제티가 확립한 벨칸토 오페라의 모든 미덕과 그 한계를 극한까지 구현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캐나다의 로버트 카슨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연출가이지만 특히 배경과 캐릭터를 새롭게 설정하여 오페라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관객들을 더욱 열광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카슨 혼자 능력만은 아니다. 그는 드라마투르기를 전담하는 이안 버튼이란 뛰어난 구성작가와 함께 일을 한다. 이 <일 트로바토레>의 드라마투르기도 이안 버튼이 담당했다.
-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호수 위의 거대한 무대에 고정 세트를 설치하여 한여름 내내 공연하므로 1년에 한 작품만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 프로그램이 <일 트로바토레>였고 2007년 프로그램은 <토스카>이다. 호반에 설치된 객석에서 관객들은 호수 쪽을 바라보면서 정면에 설치된 무대의 오페라를 즐기는 것이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한국의 소리 세상을 깨우다

배연형 · 서희원 지음 / 랜덤하우스 / 255p / 12,800원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고유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관광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와 여행문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자 <대한민국 보고보고 시리즈>를 발간했다. 1권 <한국의 소리, 세상을 깨우다>, 2권 <한국의 길, 가슴을 흔들다>로 구성되었다. 1권 <한국의 소리, 세상을 깨우다>는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소리의 현장을 찾아 색다른 여행을 떠난다. 소리와 관련이 있는 그 지역의 문화와 다양한 스토리를 에피소드와 함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옛날 사진과 그림, 음반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여행이다. 이 책에서 다룬 '소리'는 관광객이 직접 그 여행지를 찾아가서 공연을 보거나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이 중심이 되었다. 사당패의 본거지 경기도 안성 청룡사, 판소리 여섯 바탕을 정리한 신재효와 전복 고창, 눈물겨운 아라리의 본고장 강원도 정선 등 문화와 공간이 결합된 여행지는 '소리'라는 한국적인 고유성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모두 표출할 수 있는 적절한 테마이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유일한 특징으로, 관광으로서의 욕구도 충분히 자극시켜주는 품격 높은 여행문화로 이끌어주는 책이다.

영화음악은 나의 힘

김관희 지음 / 이매진 / 301p / 12,000원



음악이 없는 영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 어떤 멜로디를 들을 때, "이 음악 영화 ○○에서 들었는데, 제목이 뭐였지?"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건 영화의 특별한 장면과 음악이 결합되어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 해도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대사와 장면으로 모두 표현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사랑이 시작되는 떨림,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 온 몸이 눈물로 차오르는 듯한 서러움. 이런 화면을 볼 때는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제대로 나와 줘야 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영화음악의 역할은 단순히 영상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영화에 밀착된 분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최초의 영화 전문 리뷰 사이트 OST-BOX를 꾸려가며 10여년 간 국내외 영화음악을 소개하고 평해온 김관희 씨가 한국의 영화음악가 9인을 만났다. <은행나무 침대>의 이병우, <박하사탕>의 이재진,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의 조영욱 등 한국 영화음악계에서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홉 명 음악감독들이 필모그래피와 바이오그래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인터뷰를 실었다. 영화 속 음악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악

전인평 지음 / 현암사 / 496p / 28,000원



라디오에서 명곡감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대부분 모차르트, 베토벤 등 서양음악을 다룬다. 우리 음악은 새벽 혹은 늦은 밤에 편성되기 일쑤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청취자가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식으로,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구색 맞추어 끼워둔 찬밥 신세는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우리 음악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탈아입국(脫亞入歐)'을 주창하던 일본이 근대 교육을 실시하면서 제도권에서 서양 음악만 교육한 탓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이야기만 하면서 한탄할 수는 없다. 우리 음악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음악에 관한 책들은 아주 딱딱한 이론서이거나 국악 감상 에세이로 양분되었다. 이론서는 전공자들이나 읽는 책으로 치부되고, 보다 깊이 우리 음악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국악 감상 에세이는 음악 이론이 없고 너무 간략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점을 보완하여 이 책은 음악 이론과 감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아울렀다. 우리 음악의 멋을 찾아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마침내는 우리 음악을 사랑하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중국광파예술단 단장일행 부산문화회관 방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0월 29일 중국 베이징 초청공연 협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그동안 꾸준히 교류해온 중국 광파 민족악단 초청으로 오는 10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광파민족악단은 역사와 전통의 노련미와 패기를 갖춘 중국을 대표하는 연주단체로, 지난 2000년 5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꾸준한 교류활동을 가져왔다. 1,400여석의 세계적 수준의 콘서트홀인 베이징음악청에서 열리는 이번 초청공연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로 흥겨우면서도 아름다운 우리음악의 선율을 중국 현지인들

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광파민족악단 수석지휘자인 팽가봉의 객원지휘로 한·중 우정의 무대도 마련된다.

한편 지난 8월 1일에는 광파예술단 단장 왕수웨이와 지휘자 팽가봉이 10월 공연을 앞두고 업무 협의회차 부산문화회관을 방문했다. 이날 왕수웨이 단장과 팽가봉 지휘자와 만난 부산문화회관 정우연 관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 수석지휘자는 10월 공연일정을 확정짓는 한편, 앞으로 부산시립예술단과 중국광파민족악단이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 초청 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춤판 <男 콩쥐 vs 팔쥐> 공연

-9월 18일 경주엑스포공원 소공연장-



부산시립무용단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 시·도의 날 행사에 '부산의 날' 공연단으로 초청받아 9월 18일 경주엑스포공원 소공연장에서 마당춤판 <男 콩쥐 vs 팔쥐>를 공연한다.

마당춤판 <男 콩쥐 vs 팔쥐>는 지난해 수석안무자 홍기태씨의 안무로 <콩쥐팥쥐>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설화 유형으로 특히 서양의 전래동화 신데렐라와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어 엑스포를 찾은 외국인

들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작품으로 기대된다.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훈련지도/이윤혜(훈련지도자)
- 출연/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콩쥐/최의옥, 팥쥐/강모세)

부산문화회관 문화대학 1기 수강생모집

부산 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적 감성계발을 위하여 참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고품격 강좌를 개설합니다. 한국예술계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부산문화대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요강

- ▶ 기 간 : 2007. 10. 4(목) ~ 11. 21(수) / 기간 중 총 8회 강좌 실시
- ▶ 시 간 : 매주 수요일 14:00~16:00(각 회별 수업시간 변경될 수 있음)
- ▶ 모집인원 : 100명
- ▶ 신청기간 : 2007. 8. 27(월) ~ 9. 28(금)
- ▶ 장 소 : 부산문화회관(국제회의장 및 공연장)
- ▶ 수 강 료 : 30,000원(교재비, 공연2회 관람료 포함)

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286-0(부산문화회관)

- ▶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공연과) 방문 및 팩스 접수(팩스:607-6204)

E-mail 접수 : hwanilv@paran.com

- 문화대학 수강자 최종 명단은 2007. 10. 1(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마감하며, 접수명단은 매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공지사항 참고)
-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방문접수 제외

-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7, 607~6042 문화대학 담당자

● 강좌일정

구분	일 자	강 사	수업 내 용	장 소	시 간
1주	10월 4일(목)	이동신 (교향악단 지휘자)	▷ 알고 듣는 클래식 1 - Classic 음악 재미있게 듣는 법	국제회의장	14:00~16:00
2주	10월 10일(수)	박호성 (국악관현악단수석지휘자)	▷ 우리음악 입문	국제회의장	14:00~16:00
3주	10월 17일(수)	김강규 (합창단 수석지휘자)	▷ 합창의 이해 -합창, 그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움	국제회의장	14:00~16:00
4주	10월 24일(수)	홍기태 (무용단 수석안무자)	▷ 한국의 춤 - 한-눈 환의 고리, 몸	국제회의장	14:00~16:00
5주	10월 31일(수)	손기룡 (극단 수석연출자)	▷ 뮤지컬 입문 - 옹고집	국제회의장	14:00~16:00
6주	11월 8일(목)	공연관람	▷ 시립무용단 - 제 57회 정기공연 관람	대극장	19:30~21:00
7주	11월 15일(목)	공연관람	▷ 시립국악관현악단 - 제 137회 정기연주회 관람	대극장	19:30~21:00
8주	11월 21일(수)	이동신 (교향악단 지휘자)	▷ 알고 듣는 클래식 2	국제회의장	14:00~16:00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기문문제

- 부산예총 주최로 매년 가을 열리는 부산 예술인들의 축제. 올해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을 일컫는 독일어, '주도권'으로 순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루쉰 '공인일기', '아큐정전(阿Q正傳)' 등을 쓴 중국 문학가 겸 사상가.
- 보들레르가 남긴 단 한권의 시집.
- 1970년대 이후 탈춤, 풍물, 판소리 따위의 전통 민속 연회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실험적인 아의 연극, 사회 비판과 현실 고발을 주로 담고 있다.
-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 공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
- 여름 금강산을 일컫는 말.
- 출연자의 훌륭한 솜씨를 찬양하여 박수 따위로 재연을 요구하는 일.

- 우리나라 국민을 인질로 잡은 아프가니스탄 무장 정치세력집단.
- 평상복을 입고 돌이 마주서서 추는 춤. 기생춤의 하나.
- 영화를 좋아하는 한 소년과 높은 영상기사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
- 무대와 등장인물은 같지만 매회 이야기가 다른 방송 코미디. 시츄에이션 코메디.
- 시나 노래를 세는 단위. 시조 한 O.
- 말리지 아니한 인상.

새로운문제

- 아르헨티나의 수도이자 남아메리카 최대의 도시.
- 거문고나 향비파를 타는데 쓰는, 단단한 대나무로 만든 채.
-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염색체.
- 바그너가 대본을 쓰고 작곡한 4부작의 악극. 완성까지 26년이 걸린 대작으로, 독일 낭만파 악극의 걸작으로 꼽힌다.
- 조선 후기 명맥만 유지하던 우리치와 다도를 증흥시켜 다양으로 추앙받는 인물. OO선사.
- 192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중가요와 연극을 섞어서 만든 극 형태.
-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1755~1793). 대혁명 때 반혁명파의 중심으로 활약하다 단두대에 처형되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 17호. 황해도 해서 지방에서 전승되었던 탈춤.
- 지난 8월 14일 막을 내린 아시아 최초의 음악영화제가 열린 도시.
- 장기, 바둑 따위에서 그 실력이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사람.
- 어떤 음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음과 2도 높은 음을 교대로 빨리 연주하여 물결 모양의 음을 내는 장식음. 이탈리아의 타르티니가 1713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는 제 3악장에 이것이 매우 많아 일명 '악마의 OO'이라고도 불려진다.

지난호 정답

클	래	식	은	내	친	구	구	
	프			림	쥬	구	글	
노	팅	힐		긋	거	리	장	단
고			대				승	
단	소		황	진	이		공	리
	프	라	하		무	랑	수	전
	라			기		공	스	
모	노	드	라	마		오	가	케
	스	로			요			이
크		인	걸	볼		마	스	코트

- 산마루골터(구.둔방물때)
 - 백환진(사상구 주례3등)
 - 전환우(영도구 영선동)
 - 박소연(중구 중앙동)
 - 송기철(남구 대연3동)
 - 유부조(해운대구 반여2동)
- 가미골 소극장 초대권
 - 과미영(남구 대연5동)
 - 이종환(서구 동대신동)
 - 오경환(동래구 온천3동)
 - 오윤애(부산진구 양정동)
 - 김영주(사하구 괴정4동)
- 큰집 식사권
 - 박현주(부산진구 부전동)
 - 류기환(연제구 거제2동)
 - 오정국(부산진구 전포2동)
 - 김영현(서구 남부민3동)
 - 노정자(서구 충무동 1가)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 김선영(북구 화명동)
 - 권유진(금정구 장전동)
 - 이은득(금정구 부곡3동)
 - 박영희(사상구 모리2동)
 - 여승훈(사하구 신평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미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산마루 골터

· 짬갈비

· 삼계탕, 들솔비빔밥

UN로터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주문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9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영화 '라파퓀' *라파퓀이*

“너희들은 흠치고 파괴하기만 하잖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창조하고 싶어. 내 손으로 뭘 만들고 싶어.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다구.”
주인공 쥐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아마도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지침이 될 것 같다.
-윤금해(수영구 남천동)

그랜드오페라관 '마술피리' *마술피리*

지금까지의 오페라 공연에 웬지 커피향이 배여 있었다면
이번 마술피리는 구수한 된장냄새가 난다고나 할까...
귀에 익숙한 '밤의 여왕' 아리아에 심취되었다가도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2중창 '파파 파파파'에서는
모두의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한꺼번에 견인해 가버리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그 감동은 냉동된채 녹을 줄 모른다.
-장정혜(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립무용단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

아버지에 대한 사랑!
운명적 만남과 사랑!
삶에 대한 사랑!
부산시립무용단이 벌이는 한 여름밤의 풍성한 몸말 잔치.
-김성숙(금정구 남산동)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예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 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8월 테마여행 비와 음악과 웃음이 있어 즐거웠던 여름여행



“너 이놈 별주부야. 너를 담박에 내민 바위에다 웅기짐을 부수듯이 콧 죽일 일이로되 수로 만리, 나를 업고 다닌 정성을 봐서 너를 살려 줄 것이니 이 다음에는 다시 그런 보추 없는 짓을 하지 말어라...”

별주의 고장 사천으로 떠난 8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시원한 여름 그늘을 드리워주는 대나무 팜스테이 마을 비봉내와 사천 어촌마을 다매 갯벌장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번 여행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79명의 인원이 참가,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사천으로 출발했다. 특히 이번 여행은 KBS 부산방송총국 촬영팀이 동행,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전 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8월 10일 금요일 아침 여행에 대한 기대에 부푼 정기회원 가족들과 출발, 한시간쯤 달렸을까, 사천에 도착할 무렵 세찬 장대비가 쏟아져 회원들이 슬렁였다. ‘혹시 뗏목을 못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 다행히 대나무 악기를 만드는 오전은 실내활동이라 일정을 진행하며 날씨를 관찰하기로 했다.



비 걱정은 접어두고 시작된 체험행사. 어린이들이 대나무로 된 악기를 만드는 사이 어머니들은 대나무 잎을 찢고 뒀어 대잎차를 만들었다. 대잎차 만들드라, 우리 아이 앞에 다가간 방송국 카메라 신경 쓰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오전 일정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주아, 박순자 단원과 함께하는 ‘대숲 음악회’로 마무리 했다.

오후 시간은 방울 토마토따기와 갯벌체험. 오전에 내린

폭우로 하천에 물이 불어 뗏목타기가 어려웠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 무인도 탐험을 시도했지만 파도로 무인도로 나가는 배마저 운항이 힘들어 급하게 일정을 갯벌 체험장으로 바꿨다. 다땃 어촌마을체험장은 봄부터 여름에는 바지락이 나고 가을에는 전어와 낙지가 잡히고 겨울에서 다음해 봄까지는 굴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년 내내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사천의 명소이다. 넓게 펼쳐진 갯벌을 보자 정기회원 가족들의 탄성이 쏟아졌다.



갯벌 체험에 앞서 부산시립합창단 이정란, 최영수 단원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성희, 정주아, 박순자 단원과 함께 오후 음악회를 가졌다. 오전 대숲 음악회에 이어 갯벌 음악회라고나 할까.

드넓은 갯벌을 배경으로,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우리 동요와 판소리 수궁가 무대. 합창단 단원과 함께 부르는 동요도 동요지만 처음으로 판소리를 접한 회원들에게는 수궁가를 잊을 수 없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궁가 완창무대를 가진 바 있는 박성희 씨가 부르는 '수궁가'. 별주부의 고장 사천에서 듣는 수궁가는 회원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재미나는 사실, 친근감 넘치는 소리에 웃음을 참지 못한 회원들은 8월의 뜨거운 햇살도 아랑곳 않고 갯벌을 찌렁찌렁 울리는 판소리 자락에 한참을 즐겨워했다.

비와 더위라는 악천후 속에서 진행된 8월 정기회원 테마여행. 자연의 섭리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즐거운 하루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10명을 추첨, 1인 2명에게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발 표 : 8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예술의 초대>지면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10월 12일(금) 마산 문신미술관, 부재산방

높은 가을하늘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문신미술관에서 조각품을 감상하는 기회. 부재산방에서 영농체험과 전통음식 만들기로 가을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10월의 테마여행.

- 08:4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문신미술관 도착
- ▷ 11:20 문신미술관 출발 ▷ 12:00 부재산방 도착
- ▷ 12:00 부재산방 도착 ▷ 16:30 부재산방 출발
- ▷ 16:30 부재산방 출발 ▷ 18:00 부산문화회관 도착



▶ 11월 9일(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및 단감따기 체험

세계 최초의 건축 도자 전문미술관인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과 농촌의 정취가 살아있는 김해 무척산으로 떠나는 늦가을 여행.

- 08:40 부산문화회관 집결 ▷ 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도착, 관람
- ▷ 12:30 무척산 관광농원 도착
- ▷ 13:00 딱메치기 및 단감 수확 체험
- ▷ 16:00 부산문화회관 도착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9월 당첨자

▶ 9월 14일(금)

남해 독일 마을, 문항 갯벌체험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김방자(동래구 사직2동)
김애연(해운대구 반여1동)
김현순(남구 대연1동)
김형권(사하구 괴정4동)
박세철(동래구 사직3동)
박영자(연제구 거제 3동)
예숙진(해운대구 우1동)
이말금(사하구 당리동)
손순진(영도구 신선3동 1가)
김은숙(포항시 남구)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금재경(중구 부평동)
김경희(금정구 장전2동)
김정희(북구 만덕 3동)
박희자(수영구 남천1동)
손영수(금정구 구서2동)
손정용(서구 서대신동 3가)
신금조(수영구 광안4동)
이심순(남구 대연4동)
천효원(충남 서천군 화양면)
박경미(동구 범일1동)

부산문화회관

9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9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대금산조 '서용석 류' (대금/강영진 · 장구/전학수)
- 아쟁산조 '박대성 류' (아쟁/최영훈 · 장구/신문범)
- 가야금산조 '강태홍 류' (가야금/김혜진 · 장구/이장우)
- 거문고산조 '신래동 류' (거문고/박용란 · 장구/신문범)
- 산조합주(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권혜정 ·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강상호 · 장구/신문범)

※해설/백규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9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멋든춤(춤/이정인)
- '춘향전' 중 '사랑가' (춤/권봉정, 김기원)
- 설장고춤(춤/김윤호 · 악사/이창규, 허태성, 류권홍, 최의욱)
- 춘광여정(춤/김공주, 정수민, 박창희, 오수연, 김주연)
- 춘접무(춤/강모세, 안주희)
- 화중신선(춤/서정숙, 김주령, 김동숙, 이현숙, 정진희 · 악사/김미란, 김진영, 허태성, 김주연)

● 9월 15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현악4중주 '아모르 콰르텟' 연주회

- 하이든/현악4중주 바장조 작품 3 중 제 5번 '세레나데'
 - 보로딘/현악4중주 제 2번 라장조 중 1, 2악장
 - 드보르작/현악4중주 제 12번 바장조 작품 96 '아메리카'
- ※연주/채지원(바이올린 I), 김지윤(바이올린 II), 김주희(비올라), 배보라(첼로)
※해설/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 9월 29일 토요일 오후 4:00 남성성악앙상블 4+1 연주회

- 가을밤의 낭만적인 팡페라 메들리
Nella Fantagia, You Raise Me Up, My Way, Love Me Tender
 - 남성성악앙상블 4+1이 들려주는 가을밤의 세레나데(Solo무대)
La Serenata(이탈리아 세레나데), Stanchen(독일 세레나데), Lolita(스페인 세레나데),
Fenesta che lucivi(나폴리 세레나데), L'Impiato(토셀리의 세레나데)
 - 남성성악앙상블 4+1의 감미로운 추억의 드라마 주제곡 모음
하망연(대장금 주제곡), 그대 향한 사랑(장희빈 주제곡)
 - 남성성악앙상블 4+1의 나폴리민요 포푸리
Torna a Surriento, O Sole Mio, Core'ngrato
- ※출연/서명보, 김지호, 김동국, 오동주(이상 테너), 권영준(베이스), 최혜련(피아노)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만나는

11시 토크콘서트

저명인사와 국악인이 출연하여
토크형식으로 재미있게 들려주는 삶과 예술,
그리고 품격있는 연주회!



2007. 10.5(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 | 부산일보사

공연문의 |

- 부산문화회관 625-8130 www.bsculture.busan.kr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 607-6110 www.bsgugag.com

입장권 | 균일 15,000원

- ※ 정기회원 : 홍보부에 예약 후 계좌입금회원예 한하여 30% 할인(1인 4매)
- ※ 단체관람 : 30명 이상 단체신청시 10% 할인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예매수수료없는
티켓365
www.ticket365.co.kr

서면 / 영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부서점(제일은행 옆 803-8000) 대연동 / 면화도서(경성대 앞 623-9404)
금 / 신개금LG CLS(신개금LG 단지 내 898-9109) 남포동 / 남포문고(호림빌딩 1층 245-8911~3)
하 / 한림서점(동아대 입구 204-9381) 덕천동 / 대한도서(덕천교차로 332-7339)

Vivace Classic (클래식음반 전문매장)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낭만을...
(비바체클래식은 클래식 CD와 DVD 그리고 LP를 취급하는 전문매장입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단, 예술예의초대 쿠폰과 정기회원카드 함께 제시)

☎. 051)743-0003

www.vivaceclassic.co.kr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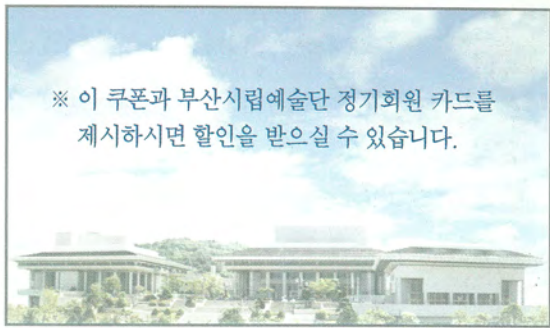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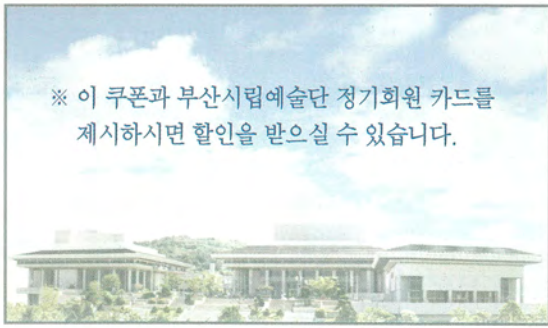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안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 · 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앞

6 0 8 - 0 2 4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10%
할인

- 날짜 : 2006년12월1일 ~ 2007년11월30일
- 시간 : 평일 - 오전10시 ~ 오후8시
(마지막 입장 오후7시)
- 주말·공휴일 - 오전9시 ~ 오후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픽의 결혼

10% 할인



- ▶ 날짜 : 2007. 9. 8(토)~9. 16(일)
- ▶ 시간 : 평일 19:30/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
(월 공연없음)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월 테마여행을 응모합니다.

- 회원명
- 회원번호
(※ 마이비카드는 마이비숫자 10자리를 적어주십시오.)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엽서는 9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떠들 짱답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이번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2007 HONEYMOON EVENT

가을 허니문 이벤트

30만원 할인 해드립니다.



사은품 여행용가방(24인치), 여권발급(단수), 1억원여행자보험, 면세점 쿠폰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www.tourfun.co.kr

NAVER

투어편

추천 허니문

태국/파타야
아이사완 리조트 5일

97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유류할증료, 특별식 3식, 스파체험, 알카자쇼, 코끼리 트래킹, 파타야 나이트 투어, 산호섬 해양스포츠, 호핑투어

필리핀/보라카이
오션클럽 리조트 5일 (리조트3박)

1,24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유류할증료, 특별식 3식, 황제진주 맛사지, 화이트 비치야간투어, 호핑투어,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플라잉보트

태국/코사무이
노라 리조트 5일

97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유류할증료, 특별식 3식, 스파체험, 알카자쇼, 코끼리 트래킹, 파타야 나이트 투어, 산호섬 해양스포츠, 호핑투어

가을 커플 여행

저렴하고 알찬 특가여행
제주도 일주 3일

17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여행자 보험, 도깨비도로, 한라산 절경, 외돌개 해안산책로, 주상절리, 조랑말 승마, 일출랜드, 동북리 해녀촌

일본속 네덜란드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히라도 3일

479,000원~

포함내용

패션왕복, 부두세, 팁포함, 여행자 보험, 태재부천만공, 하우스텐보스 1일 프리패스, 특급호텔2박 및 온천욕, 사이와이바시

세부직항
세부/아일랜드 호핑투어 4일

49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여행자 보험, 특식 2회, 디스커버리 투어 (사봉관광+ 트라이시클+재래시장), 아일랜드 호핑투어

가을 가족 여행

광활한 중국 대륙
북경/만리장성 4일

49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여행자보험, 특별식 4식, 천단공원, 왕부정거리, 서커스 관람, 명13릉, 천안문, 만리장성, 자금성, 이화원, 발맞사지

추석연휴 (9/21출발확정)
북큐슈 온천 3일

549,000원~

포함내용

패션왕복, 부두세, 팁포함, 여행자 보험, 온천욕, 유후인마을, 원숭이쇼, 가마도지옥, 유노하나 유행재배지, 아소활화산, 쿠마모토성

추석연휴 (9/21출발확정)
방콕/파타야 5일

99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여행자 보험, 호랑이공원, 미니시암, 산호섬, 농눅빌리지, 왕궁, 수상가옥, 새벽사원, 애메랄드 사원

프리스타일

후쿠오카 자유여행 2일

219,000원~

추천일정

하카다역-텐진-다자이후-베이사이드플레이스-마린월드-오호리공원-후쿠오카돔, 후쿠오카타워, 시사이드 모모치 해변공원

포함사항: 패속선왕복, 숙박, 안내자료, 부두샌딩

북경/만리장성 자유여행 4일

279,000원~

추천일정

왕부정거리-전통서커스-만리장성-명13릉-용경협-옥룡천-온천천안문-자금성-짜퉁시장-발맞사지 체험

포함사항: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공항샌딩

홍콩/마카오 자유여행 4일

399,000원~

추천일정

마카오-구룡반도-야마테이-몽콕-센트럴피크-헐리우드와 성완-완차이와 코즈웨이베이-홍콩성남부-성바울성당

포함사항: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공항샌딩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 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협력업체 이용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별난물건박물관, 필하모니, 가마골 소극장, 아쿠아리움 등)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i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19, 51-1, 68,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7번가 피자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제5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7





2007. 9.11(화) ~ 13(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9.11(화) 19:30 문화회관 대극장**
 1부 |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2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영균 (영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류장영**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주영위 (대구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9.12(수) 19:30 문화회관 대극장**
 1부 | 전북도립국악원관현악단
 2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9.13(목) 19:30 문화회관 대극장**
 1부 | 대구시립국악단
 2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25-813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607-6070 www.bscculture.busan.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6110 www.bsgugag.com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365 www.ticket365.co.kr 콜센터 1588-2528

서면 /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대연동 /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개금 / 신개금 LG CLS (신개금 LG 단지 내 898-9109) 남포동 /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하단 /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덕천동 /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입장권 **균일 5,000원** | 50명 이상 단체 관람시 3,000원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가능(예약)